

제1차 통일비저닝포럼



"북한사회 이해와 사회통합 과제"

- 이우영(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사회문화 교류와 마음의 통합"
- 박영자(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북한사회 변화와 주민생활"

일시|

4월 28일 (목) 오전 10시

장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3층 회의실



□ 토론자

-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
- 김화순 한신대 유라시아연구소 연구위원
-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진행 순서

10:00 ~ 10:10 참석자 인사

10:10 ~ 11:00 발표 1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남북한 접촉지대와 마음의 통합이론

발표 2

박영자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북한사회 변화와 주민생활

11:00 ~ 11:30 지정토론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

김화순 (한신대 유라시아연구소 연구위원)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1:30 ~ 12:00 종합토의

※ 수행 중인 연구과제의 일부로, 본 자료를 참고하실 수는 있으나 아직
은 인용하실 수 없습니다.

남북한 접촉지대와 마음의 통합이론: ‘마음의 지질학’ 시론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우리의 모든 이성적 사고는 결국 감정에 굴복하는 것으로 귀착된다.”

파스칼, 『팡세』, p. 14.

“선생님은 타인을 경멸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경멸했기 때문에 타인의 애뜻한 감정에
응하지 않았던 것이다.”

나쓰메 소세키, 『마음』, p. 17.

“그에게 자꾸 보여주고 싶었다.
보이는 것보다 보여지지 않는 것을.”
이정하, “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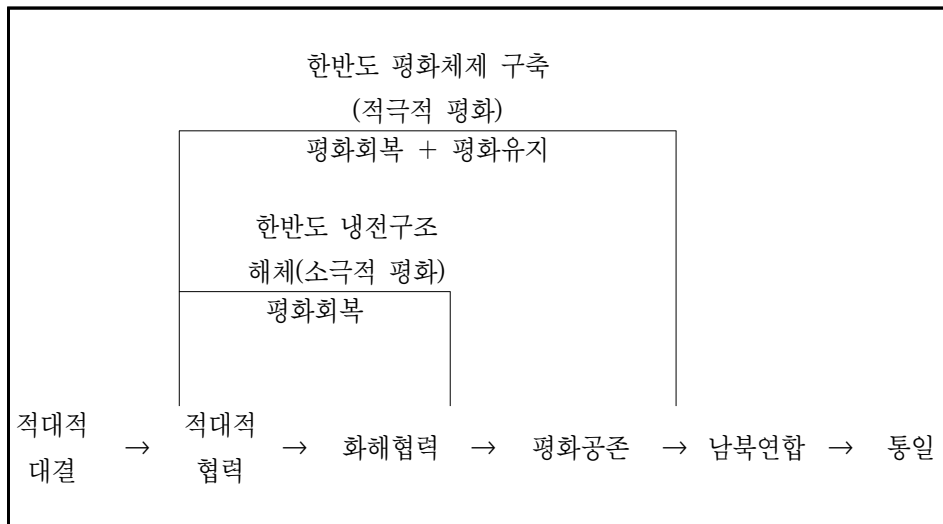
1. 사회문화통합의 의미

- ① 문화적 차원의 통합방식: 역사, 언어, 문화와 종교에 의해 논증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해당 사회의 통일성에 대한 (때로는 매우 국수주의적) 관념에 의한 사회통합.
- ② 정치적 차원의 통합방식: 헌법규범의 강력한 구속력, 억압적인 (경우에 따라 매우 억압적인) 정치제도, 그리고 이들이 정치갈등을 조절하고 집권화시킬 수 있는 능력 등에 의한 사회통합.
- ③ 경제적 차원의 통합방식: 투자, 생산, 소비의 상호관련이 당장은 아니더라도 미래에, 사회의 모든 부분에 대하여 복지와 안전의 상식적 기준을 충족시켜 줄 것이라는 기대에 의한 사회통합. 분배 관련 갈등은 그 종류와 처리 방식에 따라, 통합에 이바지 할 수도 해를 끼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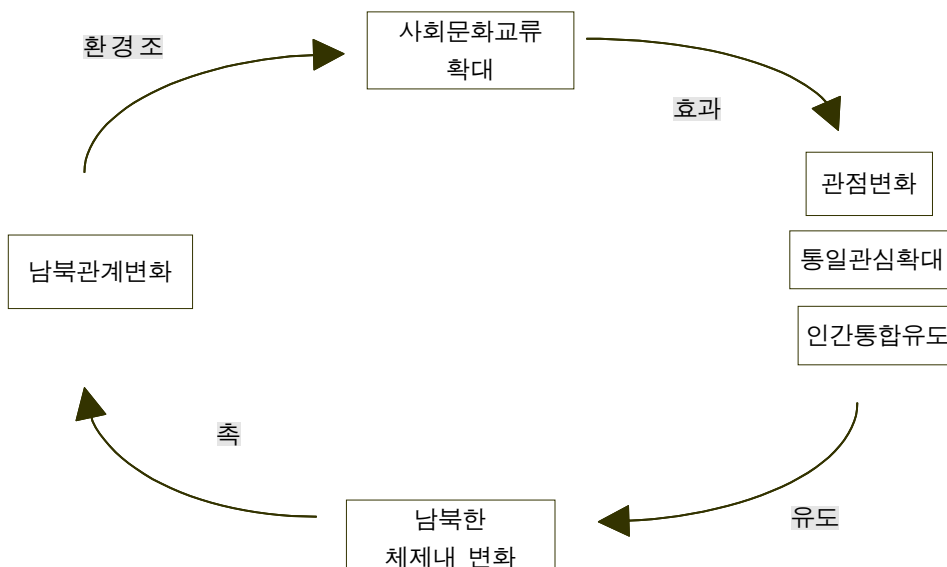
2. 사회문화교류와 사회통합

가. 남북관계의 진전 상황과 사회문화교류

〈그림 1〉 남북관계 진전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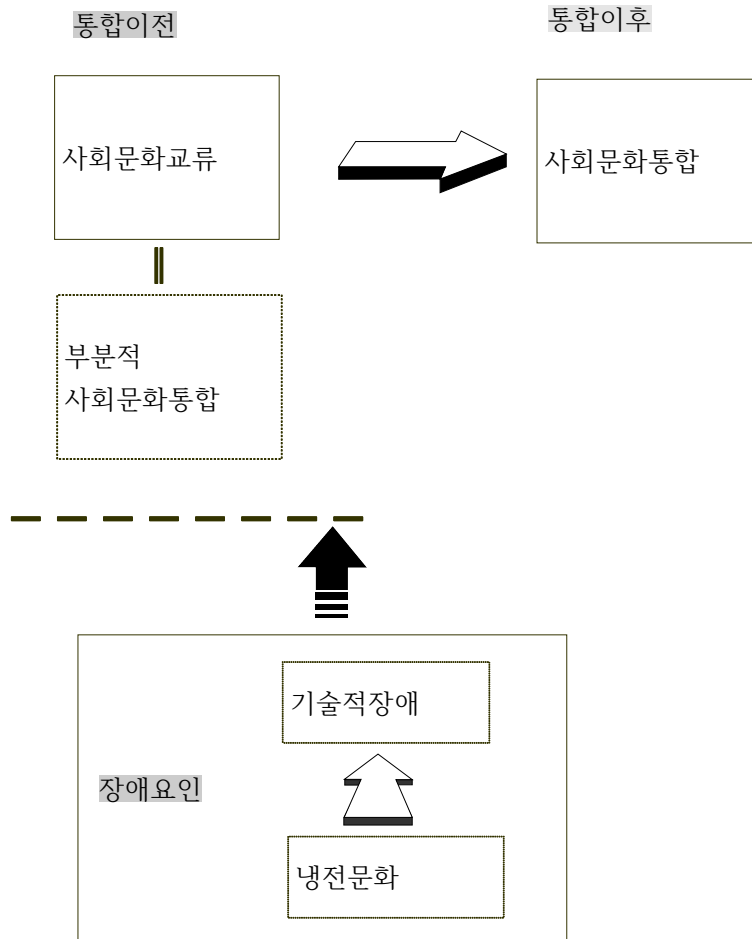


〈그림 2〉 사회문화교류와 남북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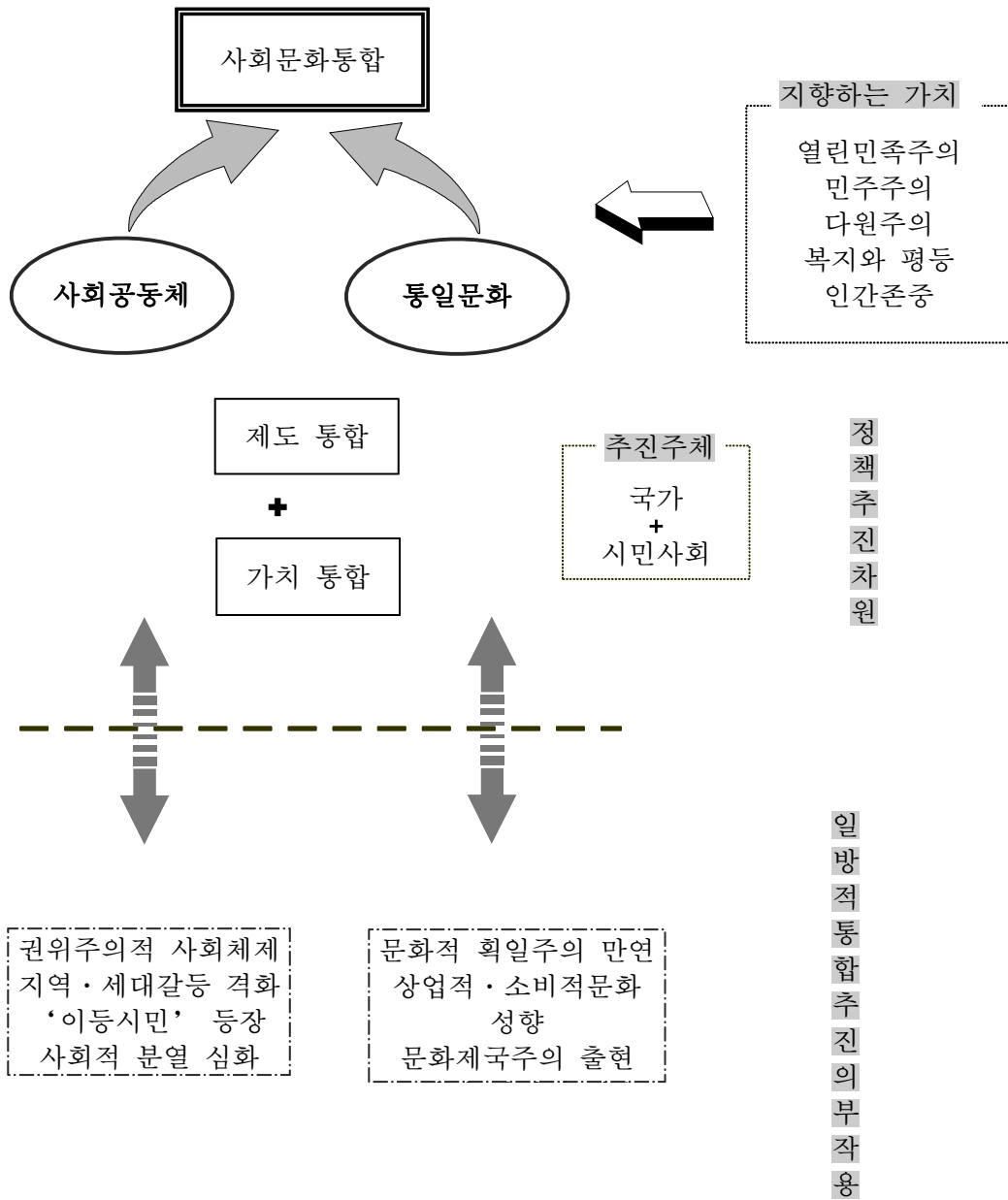


나. 사회문화교류와 사회문화통합

〈그림 3〉 사회문화교류와 사회문화 통합



〈그림 4〉 통일 후 사회문화통합과정



3. 접촉지대와 마음의 통합에 대한 문제설정

남북한 주민들이 서로 만나는 접촉지대(contact zones)에 대한 실증 연구를 통해 남북한 마음의 통합이론과 그 이론의 한 구성요소인 북한적 마음체계의 이론을 구축하는 것이 우리 연구의 목적 가운데 하나였다. 그러나 경험적 지식의 무한성을 고려한다면, 귀납적 이론화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론이 법칙을 설명할 수 있는 진술들의 집합이라면, 이론은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발명되는 것이기 때문이다.¹⁾ 그럼에도 우리가 귀납적 이론화의 경로를 선택한 이유는, 접촉지대에서 발견되는 남북한 마음체계의 규칙성에 대한 경험적 연구 없이, 접촉지대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위해 필요했던 전(前) 이론의 이론으로의 전화, 즉 이론의 발명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남북한의 접촉지대라는 개념에 주목했던 이유는, 남북한의 제도적, 비제도적 접촉지대가 한반도 미래의 거울이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접촉지대에서 발생하고 있는 자연발생적 상호작용의 경험이 남북한 사회통합을 기획하고자 할 때, 고려되어야 하는 북한적 마음체계의 기초자료라고 보기 때문이다. 접촉지대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 가운데 마음체계라는 개념에 입각하여 경험적 연구를 진행했던 이유는, 사회통합의 궁극적 형태가 행위자들의 마음의 통합이라는 문제의식 때문이었다. 접촉지대는 남한과 북한의 마음체계가 만나는 장소다. 접촉지대에서 나타나는 북한적 마음체계은 마치 다양한 마음의 퇴적층과 같은 지층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우리가 ‘마음의 지질학’(geology of mind)이란 은유를 사용하는 이유다. 접촉지대의 개념에서 마음의 개념을 경유하여 경험적 연구를 정리한 후 마음의 지질학에 기초하여 미시적 수준에서 남북한 마음체계의 통합이론을 구축하려 한다.

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접촉지대와 마음체계의 개념을 정의한다. 둘째, 남북한 접촉지대에 대한 경험적 연구성과를 정리한다. 특히 주목하는 것은, 마음의 통합의 한 축인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한 북한주

1) K. Waltz,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Reading: Addison-Wesley, 1979), pp. 4-6.

민들의 마음체계를 결정하는 변수들이다. 셋째, 북한적 마음체계에 대한 지질학적 연구성과를 기초로 남북한 마음의 통합이론을 제시한다.

4. 접촉지대와 마음체계

(1) 접촉지대의 개념

비교문학 연구자 프랫(M. L. Pratt)은, ‘접촉지대’(contact zones)를 “고도로 비대칭적인 권력관계의 맥락에서, 문화들이 서로 만나고, 충돌하고, 싸우는 사회적 공간들”로 정의한다.²⁾ 접촉지대는, 식민주의나 노예제 또는 그 유산들이 남아 있는 지역에서부터 학교의 교실과 같은 공간까지, 서로 ‘다른’ 문화들이 만날 때 형성될 수 있다. 접촉지대의 대책에는 하나의 문화가 상상되는 ‘공동체’(community)란 개념이 있다. 인쇄자본주의(print capitalism)를 매개로 경계·주권·연대를 상상하는 근대 민족이 그 사례 가운데 하나다.³⁾ 그러나 만약 상상의 공동체가 사실 접촉지대라면, 이 공동체의 매질인 쓰기와 읽기의 제도화는 권력관계의 소산임이 드러난다. 즉 접촉지대의 개념은, 상상됨으로 은폐된 차이와 차이를 무화하는 권력관계가 드러나게 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접촉지대가 사회적 공간인 이유는, 다른 자아, 다른 문화, 다른 공동체의 만남에서 배제와 포섭, 충돌과 소통, 갈등과 공존의 ‘역동성’이 교

2) M. Pratt, “Arts of the Contact Zone,” *Profession*, 91 (1991).

3) B. Anderson, *Imagined Communities* (London: Verso, 1983). 네트워크이론의 은유를 이 용한다면, 접촉지대는 서로 다른 문화적 특성을 가진 노드들(nodes)이 비대칭적 링크(links)와 플로우(flows)를 가짐에도 하나의 공동체 또는 네트워크 ‘처럼’ 기능하는 공간이다. 즉 접촉지대는 하나처럼 기능하지만, 네트워크들의 접합체인 인터네트워크(inter-networks) 또는 네트워크의 네트워크 또는 복합네트워크라 할 수 있다. 네트워크들의 관계는 강제와 동의의 링크들--지배와 피지배, 사회통합의 결절점들--에 의해 접합된다. 행위자네트워크이론(actor-network theory)이 지적하는 것처럼, “어떻게 네트워크들이 단일 행위자처럼 보이게 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도 접촉지대의 개념은 유용하다. 어떤 네트워크들이 단일 행위자로 기능하지 못할 때, 공동체가 접촉지대임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네트워크 밖의 관계는 ‘무한한’ 네트워크의 안을 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곤 한다. 행위자네트워크이론에 대해서는, 브루노 라투르 외, 『인간·사물·동맹』(서울: 이음, 2010) 참조.

차하며, 새로운 ‘우리’ 및 ‘우리’와 ‘그들’의 ‘경계’를 만드는 또 다른 ‘정체성’ (identity)을 배태하기 때문이다. 공간은 빈 그릇이나 배경이 아니라 권력관계를 포함한 ‘사회적 관계’를 구조하는 틀이다.⁴⁾ 즉 하나의 공간으로서 접촉지대는 수동적 대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남북한의 접촉지대는, ‘장소’ (place)로서의 ‘지리적 공간’과 ‘공간의 제도화’ 존재유무라는 두 변수를 사용하여 유형화할 수 있다. 첫 번째 변수인 장소는, 남북한의 ‘경계’ 그리고 경계에 의해 공간이 획정되는 ‘영토’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영토는, 또한 남북한 각각의 영토 내부 그리고 해외의 장소를 상정할 수 있다. 다른 한편 남북의 접촉지대는, 만들어진 제약인 ‘게임의 규칙’의 존재여부, 즉 ‘제도화/비제도화’의 기준을 통해 분류할 수 있다.⁵⁾ 이 두 변수를 이용한 도식화가 <표 1>이다. <표 1>은 전형적, 대표적 접촉지대의 사례들이다.⁶⁾

<표 1> 남북한의 접촉지대

장소 \ 제도		제도화	비제도화
경계		(1) 남북협상	(2) 북방한계선(NLL)
영토	남한	(3) 탈북자 거주지역	(4) 비공식 부문 탈북자
	북한	(5) 개성공업지구, 금강산	(6) 인도적 지원, 사회문화교류
	해외	(7) 유엔, 6자회담	(8) 탈북자의 해외 거주지역

4) A. Giddens, *Social Theory and Modern Sociology* (Oxford: Basil Blackwell, 1987), p. 144.

5) 더글러스 노스, 이병기 역, 『제도·제도변화·경제적 성과』 (서울: 한국경제연구원, 1996), p. 13.

6) 이 패러그래프와 <표 1>은, 본 연구자들이 소속되어 있는 SSK 사업단이 공유하는 전 이론적 진술들이다. 예를 들어, 윤철기·양문수, “북한 연구의 미시적 접근과 남북 접촉지대 연구,” 『현대북한연구』, 16: 2 (2013), pp. 257-258에 동일한 내용이 담겨 있다.

(2) 마음과 마음체계의 개념

접촉지대는 사람이 만나는 곳이고, 따라서 마음의 만남을 수반할 수 밖에 없다. 물리적 접촉지대는 비가시적이지만 실재하는 마음의 접촉지대이기도 하다. 진화심리학자가 지적하는 것처럼, “마음을 가졌는가에 대하여 아무리 그럴듯한 의문을 제기해도 결국은 서로가 주고받는 말 때문에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인다.”⁷⁾ 접촉지대에서도 말을 통해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 몸의 상호작용도 몸의 언어의 상호작용이라 할 수 있다. 언어는 마음의 도구이기 때문이다.

접촉지대에서 남북한 주민의 마음의 상호작용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마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회피할 수 없다. 직관적으로 마음이 실재함을 알고 그것이 무엇인지 마음으로 알 수 있지만, 마음의 정의 없이 마음을 이해하고, 마음을 가진 주체의 행위를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다. 정의의 조작화를 통한 마음의 측정도 난제다. 마음의 본질을 묻는 질문에 두 가지 방법으로 답을 할 수 있다. 첫째, 철학적 사변 또는 과학적 실험을 통해 마음의 형태와 기능을 찾는 작업이다. 수반되는 질문은, 비가시적, 비물질적 실체인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마음은 무엇을 하는가,’ 등이다. 둘째, 마음의 관계적 성격을 담지한 마음의 표상인 언어적, 비언어적, 반언어적 ‘행위’(act)의 분석을 통해 마음의 본질에 다가설 수 있다. 접촉지대의 연구에서 부분적으로 드러나듯, 행위는 ‘진지한’ 수행과 ‘무대화된’ 수행, ‘타당한’ 또는 ‘부당한’ 또는 ‘일시적’ 행동 등 양가적인 모순의 형태로 나타나곤 한다.⁸⁾

마음의 ‘개념사’는, 마음이란 무엇인가란 질문에 답하고자 하는 두 접근을 통합하는 한 방법이다. 마음은 무시간적(timeless) 개념처럼 보이지만, 마음은 진화의 산물이고, 마음의 개념도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⁹⁾ 개념사는, “한 개념의 역사에서 당대의 경험공간과 기대지평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그 개념의 지속과 변화를 통시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7) 대니얼 대닛, 이희재 옮김, 『마음의 진화』 (서울: 사이언스북스, 2006).

8) 행위의 복잡성은, 자크 데리다, 정승훈·진주영 옮김, 『문학의 행위』 (서울: 문학과지성사, 2013).

9) 대닛, 『마음의 진화』.

“한 개념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비동시적인 것의 동시성에 주목한다.”¹⁰⁾ 특히 개념사가 텍스트와 언어를 연구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언어라는 마음의 도구를 통해 외부환경을 내부환경에 담을 수 있는 인간생물의 마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의 마음을,¹¹⁾ 즉 ‘마음의 마음’을 읽기 위한 유용한 방법론일 수 있다.

개념사의 시각을 직유하면, 마음의 개념사는 마음의 사회사를 위한 이론적 전제다. 마음의 개념사는, 한국어 마음의 기능적 등가물들—중국어의 心, 일본어의 こころ, 영어의 mind 또는 heart, 불어의 cœur 등등—을 사회사적 맥락 속에서 검토하고, 각 개념들의 전개과정을 비교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¹²⁾ 그러나 개체, 집단, 사회, 국가, 지역 등에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마음 ‘들’을 개념사적 방법론으로 포괄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다. 특정한 ‘권역’을 설정하고 그 내부에서 ‘평균적’ 마음의 개념을 탐색하는 것이 한 대안이다. 이 경우에도 개별적 마음에서 평균적 또는 집합적 마음을 추출하거나 평균적 또는 집합적 마음을 개별적 마음과 등치할 때, 개별적 오류와 생태적 오류를 범할 수 있다.¹³⁾ 다시 언급하겠지만, 우리는 평균적 또는 집합적 마음을 마음체계의 개념으로 포착하려 한다.

마음의 개념사 연구는, 권역을 동양과 서양으로, 그리고 동양의 철학적 전통을 유학과 불교로 나누는 방식을 진행되고 있다. 물론 이 권역설정에서 누락되는 부분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이슬람 권역이나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지역 등에서 나타나는 마음에 대한 연구를 접하기란 쉽지 않은 편이다.¹⁴⁾ 한반도적 맥락에서 마음의 개념사 연구는, 근대 이후 마음개

10) 라인하르트 코젤렉, 한철 옮김, “개념사와 사회사,” 『지나간 미래』 (서울: 문학동네, 1998).

11) “남에게 자기 생각을 숨기려고 발명한 것이 언어다.” 자기의식의 발전은 남의 마음에서 벌어지는 사태에 대한 가설을 개발하고 검증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대닛, 『마음의 진화』.

12) 김홍중, “마음의 사회학을 이론화하기: 기초개념들과 설명논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8: 4 (2014), p. 183.

13) 개별적 마음에는 잔여지만 핵심일 수 있는 남는 것이 있는 것일까, 라는 질문은 또 다른 천착의 주제다. 주체의 호명이 이루어지더라도 모든 그 대상이 동일한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념의 수입원이었던 서양철학적 전통과 근대 이전 한반도적 마음의 반영하며 구조하는 역할을 했던 동양철학적 전통이 교차하는 영역이다. 다른 한편 마음의 개념은, 심리학과 인공지능을 연구대상에 포함하는 융합학문인 인지과학(cognitive science)의 연구대상이다. 마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의 답은 철학사와 현대의 심리학과 인지과학 두 갈래에서 찾아질 수 있다.

동서양의 철학적 전통에서 마음은 ‘주체’와 연관된다. “서양의 철학적 전통이 인식의 주체, 사유의 주체로서의 마음에 천착”했다면, “동양에서의 마음이란 인식과 사유를 넘어서는 종교적 완성의 주체”이기도 했다.¹⁵⁾ 즉 세계에 대한 인식과 그 인식에 기반한 행위를 하는 ‘주체’가 있다면, 그 주체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다. 마음은 몸과 더불어 주체를 구성하는 한 요소다. 데카르트에서 시작된 서양 근대에서 의식이 마음과 등치되면서 독립된 실체로서 주체를 구성하는 요소였다면, 동양적 전통에서는 마음으로 번역되는 심(心)은 “나의 성격과 영역, 역할에 대한 규정의 체계”로 순자(荀子)가 “임금”으로 표현할 정도로 주체를 규정하는 요소이면서 동시에 유학의 목표인 “착하게 살자”를 실현해 주는 규범적 구성요소였다.¹⁶⁾

마음의 개념과 관련하여 동서양의 철학적 전통을 관통하는 두 쟁점은, 마음과 몸의 관계 그리고 마음과 외부세계의 관계다. 서양의 고전적 철학전통에서 마음과 몸은, 서로 대립되는 범주이면서도 서로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모순적 진술로 인간이란 주체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했다.¹⁷⁾ 다른 한편, 유학적 전통에서 심(心)이란 몸의 중심을 의미했다. 따라서 심(心)은 몸과 마음을 하나로 보는 일원론적 시각을 내재하고 있었다. 맹자

14) 이슬람 바로 알기를 위해 기획된, 마크 A. 가브리엘, 최상도 옮김, 『이슬람 테러리스트의 마음 엿보기』 (서울: 글마당, 2011)가 예외적 제목을 달고 있다.

15)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엮음, 『마음과 철학: 서양편 상』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마음과 철학: 서양편 하』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마음과 철학: 유학편』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마음과 철학: 불교편』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3)의 “발간사”의 한 구절이다.

16) 정원재, “유학에서 보는 마음: 거울과 저울, 또는 사랑과 앎의 변주곡,” 서울대 철학사상연구소 엮음, 『마음과 철학: 유학편』.

17) 강진호, “마음을 이해하는 서양철학의 세 가지 전통,”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엮음, 『마음과 철학: 서양편 상』.

(孟子) 이래로 심학(心學)에 제기된 문제는, “신체에 의존하면서 동시에 신체를 주재한다는 것은 양립할 수 없는 모순 아닌가” 였다. “심은 단순히 심장인 것이 아니라 외부세계와의 감응을 총괄하고 주재하는 신경생리학적 중심인 동시에 신체성을 극복하고 규제하여 도덕적 이념을 실천할 수 있는 사유·도덕 기관으로서의 정신적인 성격을 지닌 ‘마음’ 이었다.¹⁸⁾

유학적 전통에서는 마음을 반응과 계산이 포함된 지각으로 정의하고, 도덕법칙과 같은 이(理)와 개인의 욕망과 같은 기(氣)의 개념을 도입하여, 이기가 합쳐진 것으로서의 마음을 “선한 반응과 행위를 이끌어내는 마음” 으로, 기로서의 마음을 “자신의 이익을 계산하는 마음” 으로, 이로서의 마음을 “옳고 그름을 계산하는 마음” 으로 정리해 왔다.¹⁹⁾ 서양적 근대와 마주하기까지 동아시아와 한반도에서 마음의 개념을 둘러싼 논쟁의 성과였다. 반면 서양적 근대에서의 마음의 개념은 몸과 마음의 관계에 대한 질문의 연장이었다. 대표적으로 데카르트는, 마음과 몸의 이원론을 제시했다. 나와 동의어인 마음은 그 본질이 생각하는 것인 실체이고, 어떠한 공간도 물질적인 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전형적인 기독교적 세계관에 입각한 것이겠지만, 몸이 존재하지 않을지라도 영혼은 존재한다는 주장이었다.²⁰⁾

데카르트의 마음개념은 전형적인 신을 대체하는 이성중심주의라 할 수 있다. 신약성서 요한복음 1장 1절의, “한처음에 말씀(the Word)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를 떠올리게 한다.²¹⁾ 데카르트에 따르면, 마음은 비신체적 실체였다. 마음은 그 기능으로 정의되는데, 생각하는 기능이 핵심이었다. 몸과 마음의 이원론은, 마음을 비공간적(non-spatial)인 것으로 정의하게 했다. 물리적인 것의 특징이 연장(extension)이라 할 때, 데카르트의 마음은 점이나 소립자처럼 공간적 위치

18) 문석윤, 『동양적 마음의 탄생』 (파주: 글항아리, 2013).

19) 정원재, “유학에서 보는 마음.”

20) Discourse. 물론 데카르트가 이원론을 절대적으로 옹호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그의 글에서 일원론적 흔적도 확인할 수 있다: “I do not only reside in my body, as a pilot in his ship, but am intimately connected with it, and the mixture is so blended that something like a single whole is produced.” Mediations.

21) 『요한복음』, 1: 1. J. Derrida.

(location)는 있지만, 공간적 연장은 없는 실체로 정당화될 수 있었다. 데카르트의 마음에 관한 정의는 “기계 속 유령”을 상징하는 것과 비슷했다.²²⁾

데카르트보다 20여년 늦은 시대를 살았던 파스칼은 기계라는 은유를 사용하면서도 마음과 관련하여 이성보다는 감정에 초점을 맞추었다.²³⁾

우리는 정신이면서 또 그만큼 자동 기계다. 그러므로 설득에 사용되는 수단은 증명만이 아니다. 증명된 사물이란 얼마나 적은가! 증명은 오직 이성만을 설득한다. 습관이야말로 가장 강력하고 가장 신뢰받는 증명을 이룬다. 습관은 자동 기계를 기울게 하고 자동 기계는 무의식중에 정신을 이끌어 간다. ... 습관은 억지도 기교도 이론도 없이 사물을 믿게 하고 우리의 모든 기능을 이 믿음으로 기울게 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그 속에 빠져들어 간다. ... 이성의 움직임은 완만하고 수많은 관점에서, 그리고 수많은 원리 위에서 이루어진다. 이 원리들은 항상 눈앞에 현존해야 하는데 이성은 이 모든 것들을 간직할 수 없으므로 으레 몽롱해지거나 갈팡질팡한다. 감정은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다. 감정은 순식간에 발동하고 늘 움직일 태세가 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감정 안에 두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비틀거릴 것이다.

마치, 유학적 전통에서 반응과 계산 가운데 어느 편이 주체의 구성요소인 마음의 본질인가를 연상하게 한다. 인간의 마음 가운데 감정과 이성 어느 편이 마음의 본질인가를 묻는 것이기도 하다. 다른 한편, 정신과 물질을

22) Rowlands, *The New Science of the Mind*.

23) 파스칼, 이환 옮김, 『팡세』 (서울: 민음사, 2011).

서로 독립적 실체로 생각했던 데카르트의 이원론은 정신과 물질 어느 한편에서 다른 것을 도출하는 관념론과 유물론의 대립을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유물론의 완화된 표현인 물리주의(physicalism)를 지지하는 철학자들 내에서도 마음현상이 물질적 속성으로 환원될 수 있는가의 여부는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다.

인공지능의 진화가 마음의 한 구성요소인 계산을 대체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인지과학에서는 인간의 마음을 컴퓨터에 비유하곤 한다. 인지과학자는 마음에 관한 질문에 대해 컴퓨터적 접근을 하는 이들로 정의되기까지 한다.²⁴⁾ 인지과학에서는 마음연구를, 뇌 속에 존재하는 ‘마음과정’(mental processes)에 대한 연구라 생각한다.²⁵⁾ ‘정신생활(mental life)의 과학’이라는 심리학의 고전적 정의도 같은 맥락이다. 즉 우리의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관찰하겠다는 것이다.²⁶⁾ 예를 들어 인지과학의 한 은유로 마음과정은 지각, 기억, 생각, 추론 등등이 뇌의 하드웨어 속에서 실현되는 추상적 프로그램이다. 전형적인 데카르트적 인지과학이 마음을 연구할 때 고려하는 비유다.²⁷⁾ 인간이란 종이 가지는 마음은 특이한데, “솔직히 다른 생물 중 가운데 인간처럼 어떤 것에, 심지어 어떤 책에서 읽은 사상에 목숨을 걸고 목숨을 잃기도 하는 종이 또 있을까”라는 질문이 제기되기도 한다.²⁸⁾

그러나 다시금 서양철학에서 반복되었던 몸과 마음을 둘러싼 논쟁이 인지과학에 투사되고 있다. 비데카르트적 인지과학은 유물론적이다. 비물리적 실체로 회귀하지 않는다. 정신적 상태와 과정이 순수하게 뇌 속에서 발생한다는 주장을 거부한다. 마음의 일부는 그렇지만 전부 다는 아니라는 것이다. 마음상태와 과정은 뇌 속에서 발생하는 어떤 것들일 뿐만 아니라

24) D. Borchert, ed., *Encyclopedia of Philosophy* Vol. 2 (Farmington Hills: Thomson Gale, 2006), p. 297.

25) M. Rowlands, *The New Science of the Mind: From Extended Mind to Embodied Phenomenology* (Cambridge: The MIT Press, 2010).

26) G. Butler and F. McManus, *Psychology: A Very Short Introduc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27) M. Rowlands, *The New Science of the Mind*.

28) 리드 몬터규, 박중서 옮김, 『선택의 과학: 뇌과학이 밝혀낸 의사 결정의 비밀』 (서울: 사이언스북스, 2011).

부분적으로 우리의 몸에서 부분적으로는 우리의 몸 밖에 있는 세계에서 발생하는 어떤 것이다.²⁹⁾

비데카르트적 인지과학은 네 가지 마음을 상정한다.³⁰⁾ 첫째, 신체화된(embodied) 마음이다. 신체화된 마음은 뇌과정과 더불어 몸의 구조와 과정을 포함한다. 심리적 과정은 몸의 공헌 없이 완성되지 않는다. 신체화된 마음은 세 종류다. 첫째, 지식적(epistemic)이다. 마음과정이 위치한 몸의 구조를 이해함이 없이 인지과정의 성격을 알기란 불가능하다. 인지가 뇌 속에서 발생한다는 주장도 사실 신체화된 마음과 다르지 않다. 마음은 이해하지만, 몸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례를 본다. 둘째, 존재적(ontic)이다. 인지과정이 몸의 구조에 의존한다는 의미다. “몸은 내가 숨기려는 비밀을 얼굴을 붉히거나 손을 떨거나 땀을 흘려서 기어이 드러낸다.”³¹⁾ 셋째, 다른 존재적 의미는, 몸의존성보다 구성(constitution or composition)을 강조한다. 몸의 구조, 예를 들어 귀 사이의 거리가 인지과정을 부분적으로 구성한다는 것이다.

둘째, 연장된(extended) 마음이다. 유기체의 마음과정 일부가 세계에 대한 행동에 의해 구성된다는 것이다. 세계에 대한 행동을 통해 외부 구조를 조작하고 이용하며 변형한다는 의미다. 셋째, 내재된(embedded) 마음이다. 인지과정이 환경 속에 내재해 있다는 것이다. 존재적 테제로 연장된 마음이 구성이라면 내재된 마음은 의존이다. 넷째, 작동적(enacted) 마음이다. 물건을 본다는 것은 그것을 만지는 것과 유사하다. 네 가지 마음은 결국 신체화된 마음과 연장된 마음의 ‘결합된(amalgamated) 마음’이다. 즉 존재적 테제로 인지과정이 부분적으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인지과정은, 신경구조와 과정, 몸의 구조와 과정, 그리고 환경구조와 과정의 결합이다.

마음이 성(性), 정(情), 의(意), 지(志)를 모두 포괄한다고 할 때, 마음의 활동은 기능주의적(functionalist) 시각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고, 이해하고, 사용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정보처리체계(information

29) Rowlands, *The New Science of the Mind*.

30) Rowlands, *The New Science of the Mind*.

31) 대닛, 『마음의 진화』.

processing system)일 수 있다.³²⁾ 기능주의적 시각에서 마음이 ‘하는 일’은 주체의 호명이다.³³⁾ 이 마음은, 특정한 정치경제적 국면에서 구조화되어 주체를 형성하는 하나의 ‘레짐’(regime)으로 등장할 수 있다. 마음의 레짐은, “주체를 만들어내는 담론적 혹은 비담론적 요소들의 네트워크이자, 권력의 특수한 요구에 의해서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특정 시대에 특정한 방식의 인식과 실천의 주체들을 걸러내고, 빚어내고, 결절시키는 구조를 가리키는 일종의 장치라 할 수 있다.”³⁴⁾ 우리는 마음의 레짐이라는 개념을 수용하지만, 특정 국면에서의 마음의 레짐과 더불어 규범적 지향인 마음의 통합을 위한 ‘공동의’ 필요와 행동을 포함한 보다 구조화된 포괄적 개념으로 ‘마음체계’라는 개념을 사용하고자 한다.

마음의 ‘체계’는, 국제관계이론을 원용한다면, 행위자들 사이의 규칙, 기대, 처방, 의사결정절차의 틀을 지칭하고 분명하게 정의된 ‘이슈영역’(issue area) 안에서 만들어지는 레짐과 상호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협력적 관계를 수립하는 데 필요한 공동의 인식과 행동을 동시에 포착하기 위한 개념이다.³⁵⁾ 즉 마음체계는 자아를 호명하는 이데올로기, 신화, 사상과 같은 것들이다. “근대적 주체는 우연한 사건과 상처를 필연적인 것으로 떠맡는 행위에 의해서 비로소 주체가 된다.”³⁶⁾ 물론 본 연구에서 마음의 체계는, 보편적 개념이 아니라, 접촉지대라는 ‘특정한’ 시공간과 ‘특정한’ 이슈영역에서 주체의 형성과 행위자를 제약하는 지시적, 규범적 개념이다. 특정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에서 나타난 ‘속물주의’(snobbism)나 남한에서 경제적 양극화의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는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처럼, 마음체계의 변화 가능성에 주목하기 위해서다.

32) 신현정 외, 『마음학』 (서울: 백산서당, 2010); G. Butler & F. McManus, *Psychology: A Very Short Introduc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33) 심광현, 『맑스와 마음의 정치학: 생산양식과 주체양식의 변증법』 (서울: 문화과학사, 2014).

34) 김홍중, 『마음의 사회학』 (파주: 문학동네, 2009), pp. 22-24.

35) 레짐의 정의는, S. Krasner, ed., *International Regime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3); 체계에 대한 정의는, 평화체계란 개념을 사용했던 D. Mitrany, *A Working Peace System* (Chicago: Quadrangle Books, 1966) 참조.

36) 박가분, “변신하는 리바이어선과 감정의 정치,” 『창작과 비평』, 42: 4 (2014).

5. 남북한 접촉지대 연구와 마음체계의 실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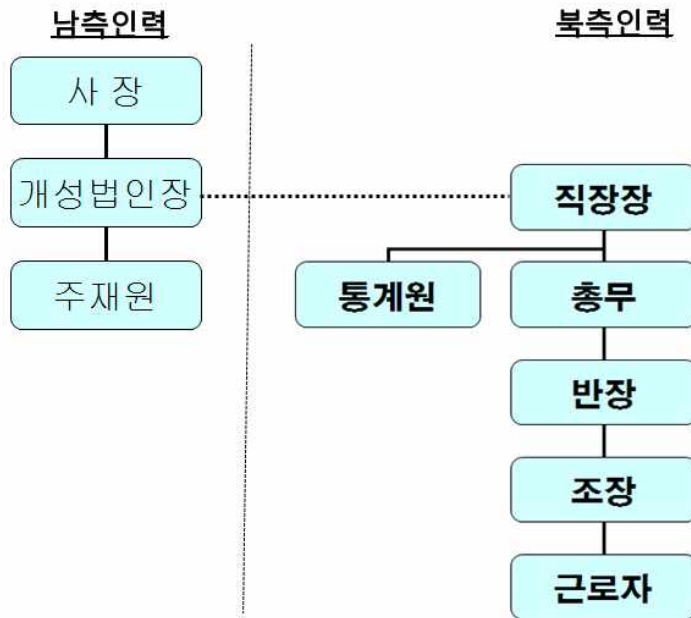
현재 국내외와 경계지역에서 접촉지대에서 남북한 사람들은 다양한 형태로 관계를 맺고 있다. 관계의 양상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지만, 그 특성은 남북한의 ‘분단’ 상황을 반영하게 된다. 분단된 상황에서 남북한 사람들의 접촉은 매우 제한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북한의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탈북자의 증가는 한국사회에서 남북한 사람들 간의 접촉면을 증가시켰다. 또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기 대북 포용정책의 결과, 만남과 교류가 증가하면서 남북한 사람들 간의 접촉면이 증가하게 된다. 접촉면이 확대되는 가운데, 남북한 사람들 간에 형성되고 있는 관계와 마음체계의 특성을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탈북자들과 남한 사람들의 관계로서, 국내외에서 탈북자는 모두 ‘사회적 소수자’의 특성을 가진다. 반면 남한 사람들은 공간적 제약에 민감하다. 한국사회에서 남한 사람들은 주류와 다수가 되지만, 해외 지역에서는 남한 사람들 역시 사회적 소수자가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탈북자들은 어느 공간에서도 ‘사회적 소수자’가 된다는 점이다. 사회적 소수자로서의 특성은 관계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남한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부정의, 불공평, 불평등, 소외감 등을 인식하고 느끼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³⁷⁾ 이 인식과 감정들은 탈북자들에게 고향에 대한 ‘향수’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둘째, 남북한 간의 교류와 협력에서 북한체제에서 살아가는 북한사람들과 남한 사람들의 관계가 형성되는 경우이다. 이러한 만남에서 남북한 사람들 간의 관계는 고용관계 -관리자와 노동자- 와 공여자-수혜자 간의 관계이다.

37) 인천시 남동구 지역의 비정규직 혹은 비공식 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한 결과, 한국사회와 남한 사람들에 대해서 차별과 불평등에 대한 높은 불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욱 중요한 문제점은 상당수의 사람들이 한국사회가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점이다. 남한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기대마저도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림 5〉 개성공단 입주기업 운영체제



출처: 통일부

남북한 간 협력사업으로 인한 고용관계는 대표적으로 ‘개성공단’에서 남측의 관리자와 북측의 노동자들 간에 형성되고 있다. 남측 입주기업 경영자 및 관리자들은 북측 근로자들에게 직접지시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그림 5 참조). 북측 근로자의 대표적인 직장장을 반드시 경유해야 한다. 주로 개성현지 법인의 대표(법인장)이 북측의 직장장게 각종 지시 관련 사항을 전달하면 북측의 직장장이 반장-조장을 거치거나 직접 근로자에게 지시를 하달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³⁸⁾ 이때 남북한 사람들 사이에는 인식의 차이가 있다. 남측 기업사람들은 북측의 직장장이나 총무에 대해 북측 근로자 대표 정도로 생각한다. 즉 남측 기업은 기업 내에서 남과 북은 수평

38) 양문수·이우영·윤철기,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에 대한 남한 주민의 태도에 관한 연구,” 『통일문제연구』 (2013) 제59호, 147~148쪽.

적 관계가 아니라 수직적 관계, 즉 상하관계에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에 북측 사람들은 스스로를 주인으로 생각한다. 남과 북은 동등한 관계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개성공단이 북한지역에 있기 때문일 것이다. 즉 개성공단의 남북한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남측 사람들 보다는 북측 사람의 인식이 이른바 ‘공간효과’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개성공단에서 남북한 사람들의 사적인 접촉은 극히 제한된다. 북한 근로자가 남한 관리자와 만날 때, 결코 혼자 만나는 일이 없다. 그리고 개인의 간의 접촉에서도 당국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 특히 북한의 경우가 그렇다. 뿐만 아니라 남북한 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남북한 관계의 경색 국면일 때, 개성공단에서 남북한 사람들의 관계와 남북한 관계가 좋을 때의 관계는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렇게 개성공단에서 남북한 사람들의 관계를 통제하거나 영향을 주는 외부적 요인이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사람들의 태도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북한 사람들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있다. 북한 노동자들의 남한 사람들에 대한 적대감이 약화되고 있다.³⁹⁾ 즉 개성공단이란 접촉지대에서 남북한 사람들의 변화는 ‘외적 강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공여자-수혜자 간의 관계는 대북지원 활동의 증가로 인해서 남한 정부와 시민단체이고, 수혜자는 북한 주민들이다. 북한 기관(주로 민화협)들은 공여자와 수혜자 간의 직접적인 만남을 제한하고자 차단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았다.⁴⁰⁾ 일반적으로 공여자-수혜자 관계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권력관계의 특성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남북한 간에는 반대로 자칫 권력관계의 모습이 나타날까 최대한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39) 북한 주민들에 대한 태도변화는 직접적으로 설문할 수 없다. 남한 관리자들이 인식하는 변화일 수밖에 없다. 양문수·이우영·윤철기, “개성공단의 남북한 접촉이 북한 근로자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통일연구』 (2013), 제17권 2호.

40) 대북 지원단체의 활동가들을 인터뷰한 결과 공여자와 수혜자 간의 직접적인 대화와 만남이 대단히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대북지원 활동이 본격화되기 이전에 북한 정부가 남한의 시민단체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다고 한다. 북한 정부와 사람들이 국가와 시민사회에 대한 구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대북지원활동에서 자주 부딪히게 되는 북한 민화협 참사들에게 시민단체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있다. 남한의 시민단체들은 북한 기관과 주민들에 대해서 ‘검손’을 대단히 강조한다.⁴¹⁾ 그리고 모니터링 등을 이유로 북한주민들과의 직접 접촉을 확대하려 노력하였다. 대북 지원 시민단체들은 시민들의 후원이 중요하다는 점을 북측 관계자들에게 설명하고, 후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들을 직접 만나 지원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였다.⁴²⁾ 그러나 이러한 관계의 특성상 남한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에 대한 우월감과 동정심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 북한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고마움을 표시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강조한다.

셋째, 한국사회에서 자본주의적 자본-노동 관계에서 탈북자들은 대부분 ‘임금 노동자’가 된다. 임금노동자는 생존을 위해서 노동력을 자본에 판매한다. 실업이 존재하는 가운데, 임금노동자 내부에 경쟁이 발생하게 된다. 노동계급 내부의 경쟁은 노동자들을 개별화시키고 연대를 어렵게 한다. 그 결과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과 노동 간에는 권력관계가 형성되는 경우가 지배적이다. 자본은 노동의 고용부터 노동의 배치, 노동시간과 강도, 고용, 임금배분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에서 탈북자들은 ‘저임금’ 노동력이 되는 경우가 많다. 탈북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한국의 노동시장에 필요한 기술과 교육수준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북한에는 경제위기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잔업, 특근, 야근 같은 것들이 없을 정도로 공장가동률이 현저히 낮았지만, 한국의 공장들은 그에 비해서 노동시간이 길고 강도도 센 편이다. 탈북자들은 북한과의 비교할 때 높은 노동강도와 한국노동자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인 저임금 상태로 인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대적 박탈감을 더 강하게 느끼게 하는 것은 남한의 사장이나 직장상사 및 동료들과 교류가 없는 경우에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

41) 대북 지원단체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시민운동가들의 한결 같은 의견이었다.

42) 대북 지원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주민들과의 접촉면을 확대하려 노력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는 북측 민화협 및 당구자들과의 갈등은 일정정도 불가피했으며,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한다.

사되었다.⁴³⁾

넷째, 탈북자들은 이주노동자와 같은 다른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대해서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첫 번째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연대의식을 가지게 되는 경우이다. 탈북자들은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을 인식하게 되면서, 다른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대해서 동질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다. 탈북자들은 자신들에 대한 차별과 선입견 가진 문제를 직접 체감함에 따라 다른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대한 차별이 가진 문제점 역시 심각하게 인식하게 된 것이다. 두 번째는 다른 이주노동자와의 경쟁심을 가지게 되는 경우이다. 탈북자는 이는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른 국적을 가진 이주노동자들 보다 오히려 더 못한 처우를 받는 다고 느낄 때는 남한 사장에 대해서는 서운함을, 다른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경쟁심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리고 탈북자는 엄연히 한국인이기 때문에 다른 국적을 가진 이주노동자보다 못한 처우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다섯 째, 탈북자들인 고용되는 분야 가운데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서비스 분야이다. 탈북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이며, 남한 사람은 그 서비스를 소비하는 ‘고객’이다. 북한생활에 익숙한 탈북자에게 남한의 서비스는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탈북자들은 남한의 음식점이나 술집에서의 서비스가 과도하다고 느낄 때가 많다. 서비스 노동 혹은 감정노동에 대해서 탈북자들의 피로도도 남한사람과 비교할 때 더욱 높다. 그런데 더욱 힘든 점은 남한의 손님들과의 관계에 있다. 남한 사람들은 음식을 주문하거나 다른 서비스를 요구할 때, 용어나 단어가 생소해서 말을 못 알아들으면 곧바로 다른 사람을 부른다. 이렇게 되면 같이 일하는 다른 동료들에게 주문이 몰리게 된다. 결국 “말을 못 알아듣는다”는 것 때문에 손님은 물론 동료들의 눈치를 보는 일이 생기게 된다. 이 경우 탈북자 가운

43) 인천시 남동구 일대에서 비정규직이나 비공식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탈북자들 40명과 인터뷰한 결과 회사 내에서 교류가 없는 경우일수록 높은 노동강도와 낮은 임금수준에 대한 불만도는 더욱 높았다. 상대적으로 회사에 적응을 잘한 경우에도 탈북자들이 승진이나 임금수준면에서 한국사람들과 비교할 때 뒤처지게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실감을 가지고 있었다.

데는 자신의 말과 말투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느낄 정도로, 자기정체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도 한다. 그리고 ‘팁’을 주는 문화 역시 낯설다. 고마움을 느낄 때도 있지만 동정을 받는 것 같아 언제나 기분이 좋지 않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탈북자들에 대한 사회적 통합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점을 새삼 알 수 있다.

여섯 째, 남북한 대화에서 남한과 북한의 대표자 자격으로 만남이 이루어진다. 분단 상황에서 남북한 대화에 참여하는 당국자들은 정부 혹은 국가의 대표 자격을 가지고 만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등한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하지만 남북대화는 일반적인 외교회담과는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는 유엔가입 문제를 놓고 남북한 간에 벌어졌던 신경전을 통해서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노태우 정부는 유엔동시 가입을 추진하지만, 북한은 ‘조선은 하나다’라는 논리로 남북한 동시가입을 반대했었다. 국제사회에서 남북한은 모두 주권을 가진 국가임을 자임하지만, 남북한은 서로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일반적인 국가 간의 회담에서 찾아보기 힘든 일로, 남북한이 분단국가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해준다. 즉 남북회담은 일반적인 국가 간의 회담과 달리 상대방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채 진행된다. 뿐만 아니라 남북한은 회담과정에서 서로 자기체제의 ‘정당성’을 상대방과 국제사회에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한다. 정당성은 남북한이 자기체제의 우월성을 보여주거나 상대방 체제의 문제점을 통렬하게 지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 수준에서 상대방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는 상대방 체제의 문제점과 이데올로기를 연결시켜 상대방을 비난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는 회담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문제들을 상대방의 책임으로 돌리는 경우이다. 마지막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방식을 혼합한 것이다. 예컨대 회담이 결렬되면 그것은 상대측의 이념과 체제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외교회담에서 참여국들의 기본목적은 ‘국가이익의 실현’이다. 국가 간에는 외교협상 과정에서 국익실현을 위해 때로는 경쟁하고 때로는 협력한다. 협력하게 되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경쟁하게 될 경우에는 종종 외교적 갈등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경쟁적인 관계에서도 타협점을 찾기

도 하지만 때로 결렬되기도 한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그것이 빌미가 되어 국가 간의 마찰과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남북대화 역시 경쟁적 관계에 있는 국가 간의 외교협상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다. 남북대화 역시 남북한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각축하는 장이다. 그렇지만 남북한 관계는 ‘특수한 관계’이다. 남북대화에서 표출되는 양측의 이해관계는 다른 국가들과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남북한은 상대방의 대화제안에서부터 의구심을 표명하게 된다. 남북한은 대화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상대방이 대화를 제안하면 그 진정성을 믿지 못한다. 실제로 남북한은 대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서슴없이 상대방을 비방하고 흑색선전을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남북대화의 의제는 분단체제에서 발생하게 되는 남북한의 긴장 때문에 발생하게 된다. 그러면 대화에서 남북한은 우선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킨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기 바쁘다.

그렇지만 남북대화가 언제나 결렬되는 것은 아니다. 대화과정에서 양측이 상대방의 주권과 체제를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않기에 성과를 가져오기가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남북대화는 여러 차례의 큰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는 남북한 간에도 ‘공동의 이익’이 존재한다는 점을 말해준다. 이는 곧 남북한에게 국가이익이 반드시 상대방의 체제를 부정할 때만 실현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해준다. 남북한 대화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는 ‘통일’이다. 하지만 남북대화에서 일차적인 공동의 이익은 ‘현상유지(status quo)’이다. 즉 남북대화는 각각의 체제의 유지에 그 목적이 있다. 실제로 남북대화는 더 이상 남북관계가 악화되지 않고 분단된 현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서 개최되는 경우가 많다.

6. 마음의 지질학과 마음의 통합이론: 북한적 마음체계의 탐사

(1) 마음의 지질학과 북한적 마음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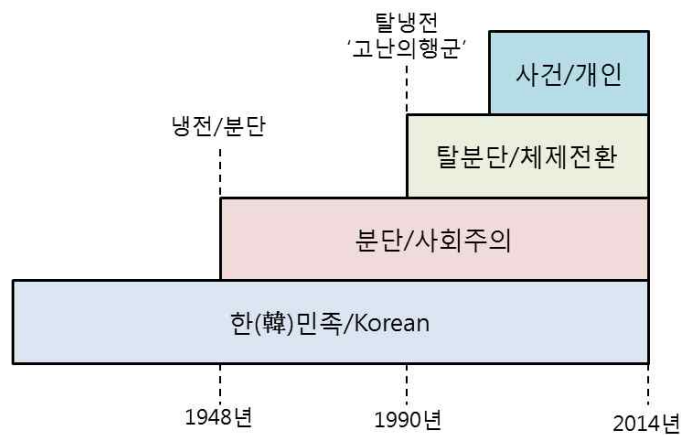
접촉지대의 사례연구를 통해 우리는 접촉지대에서 만나는 남북한 사

람들의 마음체계는 분석적으로 ‘세 층위’를 가짐을 발견할 수 있었다.⁴⁴⁾ 첫째 층위는, 자신들이 살아온/살아가는 공간에서 만들어진 마음의 체계다. 둘째 층위는 접촉지대로 진입하기 전 서로에 대한 인식이 만들어내는 마음의 체계로 첫째 층위와 밀접히 관련된다. 셋째 층위는 접촉지대라는 사회적 공간에서 남북한 사람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만들어지는 마음의 체계다. 이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로는, 첫째 접촉지대의 공간적 효과--접촉기간, 접촉목적, 접촉형태, 접촉빈도 등--와, 둘째 접촉지대 내부에서 남북한 사람들 사이의 권력관계를 들 수 있다. 개성의 자본-노동관계, 탈북자 거주지역에서의 원주민-이주민관계 등이 두 번째의 사례다. 셋째 접촉지대 내부에서 각 행위자들이 보유한 경제적 자원과 사회적 자본의 분포 정도 변수로 설정될 수 있다. 위 변수들의 비대칭적 효과로 ‘갈등’을 내면화하며 따라서 갈등의 ‘조정’의 장--마음의 체계의 재구성의 장--이 될 수밖에 없는 장소가 접촉지대다.

우리가 주목하는 북한적 마음체계는, 은유적으로 ‘마음의 지질학’(geology of mind)이라 부를 정도의 모습이다.. 접촉지대의 연구에서 잠정적으로 확인한 북한적 마음의 지층구조는, 기저에 한반도라는 지리적 조건들--지정학적, 지경학적, 지문화적 조건들--에 기초한 한(韓) 민족의 마음과 그 위에 각기 다른 역사적 기원을 가지는 분단/사회주의 마음, 탈분단/체제전환의 마음 그리고 개별 사건들과 인간들의 마음 등이 퇴적된 중층적 형태를 띠면서 하나의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림 6>는 이 지층구조의 도식화다.

44) 이 부분은 필자들이 소속되어 있는 SSK 사업단이 공유하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윤철기·양문수, “북한 연구의 미시적 접근과 남북 접촉지대 연구,” pp. 256-257.

〈그림 6〉 북한적 마음체계의 지층구조



이 지층구조는, 프랑스의 아날학파(Annales)가 제시한 세 가지 역사의 시간개념—장기지속(longue durée), 주기적 국면(conjoncture), 개별적 사건—과 그 시간구분에 기초하여 개념화한 집합적 마음의 구조화된 질서인 ‘집단심성’(mentalité)을 떠올리게 한다.⁴⁵⁾ 북한의 마음체계에 적용해 본다면, 한민족의 마음은 장기지속적 시간을, 분단/사회주의 마음과 탈분단/체제전환의 마음은 국면의 변화를 반영하는 사회사적 시간을, 북한주민이나 탈북민의 마음은 각각 개별적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주민의 집단심성은 이 시간들과 접촉하는 공간을 가로지르며 형성된다.

그러나 우리가 본 연구에서 심성(心性)이나 심리(心理)보다 한민족의 고유어인 ‘마음’을 연구의 주제로 선호하는 이유는, 마음의 고어로 알려진 ‘므슴’이 ‘마중’이나 ‘맞이함’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마음이 생물과 무생물을 포함한 외부 세계와의 관계를

45) 페르낭 브로델, 김홍식 옮김,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읽기』 (서울: 갈라파고스, 2012); 뤼시앵 페브르, 김응중 옮김, 『16세기의 무신앙 문제』 (서울: 지만지, 2008).

통해 형성된다는 점에 주목하기 위해서다.⁴⁶⁾ 마음이 성격이나 품성과 동의어로 사용될 때 마치 무관계적 개념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 무관계적으로 보이는 마음조차 자아 내부의 산물이지만 자아의 외부적 맥락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고, 외부 세계에 표현될 때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 마음의 한 구성요소가 외부의 ‘타자’를 통해 자신을 규정하며 자신(self)과 타자(other)의 경계를 긋는 과정에서 만들어질 때, 이 경계가 사회과학적 의미에서 “나는 또는 우리는 누구인가”를 결정하는 정체성(identity)을 생산한다.⁴⁷⁾

이 이론적 기반에 입각한 북한적 마음체계의 지층구조에 대한 지질학적 탐사는 두 방향으로 진행된다. 첫째, 각 지층형성의 기원을 찾는 마음의 역사학이다. 특히 사회사적 시간범주를 담지하고 있는 분단/사회주의 마음과 탈분단/체제전환의 마음이 왜 그리고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라는 질문에 답하는 작업이다. 분단/사회주의 마음이 남한이란 타자와의 경계짓기를 통해 형성된 것이라면, 탈분단/체제전환의 마음에서는 북한 스스로가 타자화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두 마음의 형성과정은 차이를 보인다. 마음의 표현이 이루어져야 그 마음의 지층을 추론할 수밖에 없다고 할 때, 정치, 경제, 사회, 사회심리 등의 분야에서 마음을 표현하는 다양한 언어적, 비언어적 매개체들을 통해 마음체계의 기원과 ‘원형’(prototype)을 찾는 작업이다.

둘째, 북한적 마음체계는 <그림 6>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서로 기원을 달리하는 다양한 마음들이 접합(articulation)되어 있는 복합체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동시에 서로 모순되는 마음들이 갈등하며 탈구(disarticulation)되고 있는 구성체이기도 하다. 1단계 접촉지대 연구에서 우리는 북한적 마음체계 내부에서 접합과 탈구를 동시적 과정으로 만드는 변수들이 ‘공간적 효과’(spatial effects)와 ‘결정적 사건’(critical incident)임을 발견했다. 공간적 효과는, 공간이 사회관계를 담는 그릇이나 배경이 아니라 사회관계를 구조화하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다.⁴⁸⁾ 예를 들어,

46) 문석윤, 『동양적 마음의 탄생』.

47) K. Woodward, *Understanding Identi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접촉지대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탈북자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영국의 한인타운인 뉴몰든 지역과 한국의 인천 남동구 지역에서 탈북자들은 서로 다른 마음체계를 표현하고 있다. 탈북이란 ‘몸의 체제전환’에도 불구하고 행위주체를 호명하는 마음체계는 공간적 효과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⁴⁹⁾ 북한이란 고정된 영토도 지정학적, 지경학적, 지문화적 변화에 따라 다른 마음체계를 생산하는 공간으로 전환될 수 있다.

공간적 효과가 결정적 사건과 결합될 때, 마음체계의 탈구가 현저하게 드러난다. 1990년대 초반 냉전의 해체 이후의 지정학적 변화는 냉전의 해체보다 지체된 1990년대 중반 북한의 경제위기와 결합되면서, 북한적 마음체계에 탈분단/체제전환의 마음이란 지층을 만들어냈다. 북한 국내적으로도 결정적 사건이 중대국면(critical juncture)을 형성하면서 새로운 체도의 건설을 위한 씨앗이 되었다. 예를 들어, 자생적 질서(spontaneous order)였던 시장의 제도화는 북한적 마음체계의 탈구를 야기한 구조적 변화였다. 즉 북한이 ‘고난의 행군’이라 부르는 1990년대 중반의 경제위기는 1945년 해방 이후 북한의 사회주의건설에 버금갈 정도의 결정적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다.

(2) 마음의 통합이론

접촉지대에서 발생하는 마음의 체계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는, 무엇이 사회구성원을 하나로 묶어주는가, 라는 고전적 사회통합 논의를 ‘미시적 수준’에서 고찰하는 것이다.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을 거시적 수준에서 체제의 지배 정당성이 사회구성원에 의해 인정되고 수용되는 ‘체제통합’(system integration)과 개인 및 집단의 상호작용을 통한 관계성의 증가인 ‘사회활동의 통합’(societal integration)으로 구분할 수 있다면,⁵⁰⁾

48) A. Giddens, *Social Theory and Modern Sociology* (Oxford: Basil Blackwells, 1987).

49) 서구의 현상학에서도 몸이 외부의 세계를 지각하는 것을 ‘감각’으로 규정하면서, 이 외부적 맥락으로 공간, 사회, 역사, 즉 시공간을 설정한다. 모리스 메를로-퐁티, 『지각의 현상학』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2). 마음은 감각을 통해 외부 세계와 소통한다는 의미다.

마음의 체계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는 거시적 사회통합의 미시적 기초를 밝히는 연구이다. 미시적 수준의 사회통합과 관련하여, 통합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방향성을 둘러싸고 세 가지의 관점이 있다.⁵¹⁾(Mayhew 1982, 12-13; 20). 첫째, 사회통합을 구성원들의 기회·권리의 평등성 확대와 소통의 확대에 기초한 연대성의 확장으로 보는 긍정적 시각이다. 둘째, 통합을 통제에 기초한 획일성의 증가로 보는 부정적 입장이다. 셋째, 사회적 관계의 조직화된 패턴을 기술하는 가치중립적 개념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사회통합 논의에 탈근대성(post-modernity)을 도입할 경우,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도 공동의 가치와 연대성을 형성하는 과정으로서 사회통합을 바라볼 수 있다.

우리는 미시적 통합의 규범적 지향을 선형적으로 설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서로 다른 두 마음의 체계가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지는, ‘상호적 마음의 체계’에 주목한다. 예를 들어 A가 보내는 마음의 출력을 성향적(dispositional) 요인에 기인한 것이라 판단할 때, A에 대한 B의 마음은 변하지 않게 된다. 즉, B의 A에 대한 마음은 고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상대방의 출력을 그것이 사건이든 행동이든 상황적(situational) 요인으로 해석한다면,⁵²⁾ 상호작용을 통해 A와 B의 마음체계가 변하며 제3의 상

50) A. Giddens, *Profiles and Critiques in Social Theor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2).

51) L. Mayhew, *Talcott Parsons: On Institutions and Social Evoluti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2).

52) J. Mercer, *Reputation & International Politic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6). Mercer는 적들이 기대와 달리 긍정적으로 행동할 때, 우리는 이 상례를 벗어난 행동을 상황적 귀인으로 설명한다. 반면 적들이 부정적 기대와 일치하게 행동할 때 성향적 귀인으로 설명한다. 이 심리이론은 심리실험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살인 사건에 대해 미국 신문들은 범인의 인격적인 결함을 부각시키는 보도를 한 반면, 중국 신문들은 범인이 처했던 상황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것이다. 이를 일반화한 진술이다: “사회심리학에서 가장 잘 알려진 현상인 기본적 귀인 오류는 어떤 사람의 행동을 설명할 때 상황적 원인보다는 행위자 내부의 원인을 더 중요하게 간주하는 경향을 말한다. ...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의 가정에 따르면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천성을 바꾸어야 하지만, 그것은 매우 어렵고 비생산적인 일이다. 그보다는 원하는 행동을 했을 때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을 마련해주고, 원치 않는 행동을 하도록 부추키는 상황을 제거해 주는 것이 낫다. 이러한 상황 중심 윤리는 동양인의 관점에 더 일치한다.” 리처드 니스벳, 최인철 옮김, 『생각의 지도』 (파주: 김영사,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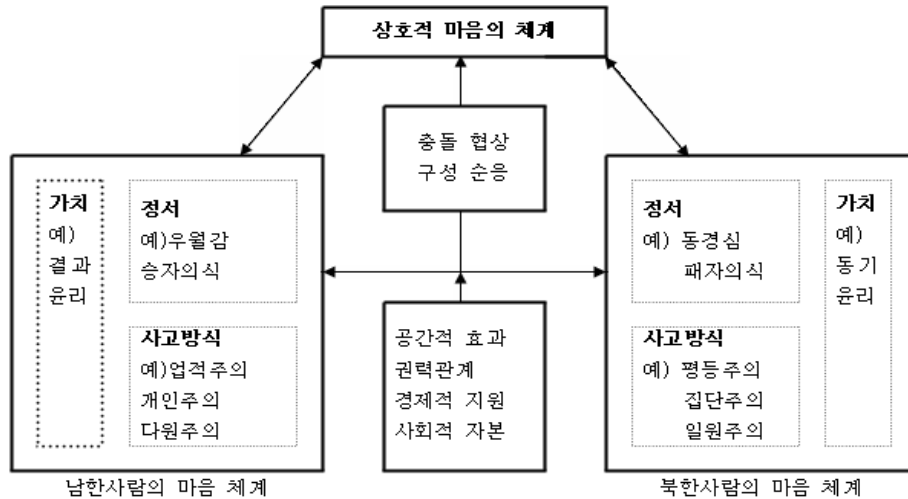
호적 마음의 체계를 형성할 수 있다. 어떤 존재가 마음을 가진 집단에 들어간다는 것은, 특정한 윤리적 태도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⁵³⁾ 우리는 제3의 상호적 마음의 체계형성을 마음의 통합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이 상호적 마음체계의 형성과정을 두텁게 기술하려 한다. 이론적 설명은 정확한 기술일 수 있기 때문이다.⁵⁴⁾

남북한 사람들의 상호 마음의 체계는 ‘충돌’과 ‘순응’이라는 이분법뿐만 아니라 마음의 체계 사이의 ‘협상’이나 서로의 마음의 체계를 새롭게 ‘구성’하여 상호적 마음의 체계를 만들어내고 있다. 예를 들어, 어떤 행동을 성향적 요인과 상황적 요인의 결합으로 바라보면서 상호작용을 통해 사건이나 행동의 원인을 협상하거나 새롭게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상호적 마음의 체계의 형태가 뚜렷한 경계를 가진 분절화된 형태로 출현하지는 않기도 한다. 예를 들어, 경제적 접촉지대에서 북한사람들은 남한사람의 업적주의를 협상을 통해 수용하지만, 자신들의 집단주의나 일원주의를 거래하지 않기도 한다. 즉, 상호적 마음의 체계는 다양한 상호작용의 형태가 결합되어 있으면서 지배적 형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복합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마음의 통합은, 지, 정, 의가 결합되어 각기 다른 작용을 하는 복합체로서 마음이 ‘진화’한다고 가정할 때, 성립될 수 있는 실천이자 개념이다. <그림 7>은 이상의 논의를 기초로 작성한 마음의 통합 즉 상호적 마음의 체계가 형성되는 과정에 대한 모형이다.

53) 다니엘 대닛, 이희재 옮김, 『마음의 진화』 (서울: 사이언스북스, 2006).

54) 라투르 외, 『인간·사물·동맹』. 두터운 기술은 또한 공식담론이 은폐하거나 구조적 설명이 간과하는 행위자들의 일상을 복원함으로써 공식담론이나 구조적 설명과 현실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과 모순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박순성·고유환·홍민, “북한 일상생활 연구의 방법론적 모색,” 『현대북한연구』, 11: 3 (2008).

<그림 7> 상호적 마음체계의 형성과정



특히 이 모형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상호적 마음체계의 협상과 구성이다. 접촉지대의 개념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처럼, 상호적 마음체계도 순응, 협상, 구성, 충돌의 형태가 있을 수 있다. 순응이 일방에 의한 타방의 흡수이고, 충돌은 두 마음체계가 손상되지 않고 공존하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접촉지대의 대척에 공동체가 있다면, 충돌과 순응은 접촉지대와 공동체의 순수한 형태일 것이다. 그 사이에 위치한 협상과 구성에서는, 소통을 기반으로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가 있고 따라서 소통과 같은 상호작용의 형태에 대한 이론적 추가가 필요하지만,⁵⁵⁾ ‘기억의 재구성’과 마음체계의 ‘새로운 지층’의 형성을 통한 남북한 마음체계의 변화를 수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55) “마음과 합심 개념의 용례들을 통해서 우리가 포착한 것은 소통 행위이다. 이성과 감성을 포괄하는 총체로서 마음 개념은 사회관계를 매개하는 핵심적 실체이며, 마음의 소통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합심은 또 하나의 새로운 의사소통의 단위로 규정할 수 있다.” “마음을 매개로 한 합심이라는 소통은 소통양식의 질적 단계에서 가장 심화된 형태로 볼 수 있는 동조적 소통양식에 다른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고, 기존의 소통이 합심이라는 소통양식 안에서 중요한 소통 영역이라는 점도 밝혀낸다.” 유승무·박수호·신종화, “‘마음’의 사회학적 재발견과 ‘합심’(合心)의 소통행위론적 이해: 조선왕조실록의 용례 분석에 근거하여,” 『사회사상과 문화』, 28집(2013).

마음은 변하기 어렵지만,⁵⁶⁾ 마음이 기억을 기반으로 한다고 할 때,⁵⁷⁾ 기억은 이 복합체가 표현되는 방식이고 따라서 기억의 재구성이 마음체계의 변화에 필수적일 수 있다. 기억하기는 정보를 입력하고(encoding), 저장하며(storage), 검색하는(retrieval) 과정이고, 내부기억장치와 외부기억장치, 정보처리절차 등으로 구성된다.⁵⁸⁾ 예를 들어 북한이탈주민을 외부기억장치를 상실한 몸의 체제전환의 사례다. 그 기억의 과정은 정치적이다. 즉 기억은 선택적이고, 해석적인 과정이다. 특히 기억의 목적이 미래를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것이라 할 때,⁵⁹⁾ 기억의 재구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협상으로, 기억의 재구성이 가능하다면 상호적 마음체계의 구성이란 방식으로 접촉지대와 공동체란 이분법으로 나누어지지 않는 남북한 사회통합의 형태를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56) H. Gardner, *Changing Minds* (Boston: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2006).

57) 나' 는 인식하고, 판단하고, 의사결정하고, 실행한다. 그러나 그 마음의 작동은 모두 과거에서 경험하고, 배우고, 기억한 정보와 조합을 통해 수정되고, 이미지화하는 복잡한 프로세스를 거친다. 현재의 뇌 과학은 여기까지 밝혀내고 있다. 즉 과거에 얻은 정보-기억이 없으면, 아무 것도 인식할 수 없다. ... 익숙한 원고지와 펜이 거기에 있다는 '기대' 를 가지고 본다. 오이 겐, 안상현 옮김, 『치매 노인은 무엇을 보고 있는가』 (성남: 윤출판, 2013), pp. 135-136.

58) J. Foster, *Memory: A Very Short Introduc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기억은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절차적(procedural) 기억; 의미적(semantic) 기억; 삽화적(episodic) 기억.

59) 미치오 카쿠, 박병철 옮김, 『마음의 미래: 인간은 마음을 지배할 수 있는가』 (과주: 김영사, 2015), pp. 182-183.

북한사회 변화와 주민생활

박영자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I. 서론

북한 사회의 변화는 다양하다. 현상적으로는 시장화와 정보화, 부의 불평등 심화, 시장을 중심으로 한 여성들의 활동 증대, 사회적 일탈행위 등이 있다. 주민의식 차원에서는 집단주의 약화와 개인주의 발전, 자유주의 및 자본주의 의식 확산, 체제불만의 증대, 가족 이기주의 강화 등이 있다. 또한 집단별로 보면 상층하 계층별, 배급세대-고난의 행군 세대-장마당세대 등 세대별, 평양/지방 및 국경-내륙 간 지역별 차이 증대 등이 있다.

이같이 다양한 북한 사회의 변화와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주제는 북한주민들의 계층 간 차이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북한사회의 계층구조를 중심으로 북한 사회의 변화와 상황을 살펴본다.¹⁾ 북한의 계층구조는 북한주민들이 부의 규모나 정치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 어떠한 양상으로 나뉘어져 있고, 집단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사회적 이동의 기회가 개방적인지, 서로 간 갈등 정도는 어떠한지 등 북한체제의 동태성을 밝히는 데 중요한 기준이다.

계층 분석은 외형적으로 단일하게 보이거나 또는 복잡하게 보이는 한 사회의 구조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사회구조 분석의 핵심은 계층이며 계층연구는 북한사회의 성격 및 정체성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한 사회의 구체화되고 서열화된 집단에 대한 연구는 생

1) 이 발표문은 필자가 연구책임진 통일연구원의 2015년 연구과제, 『북한주민의 임파워먼트: 주체의 동력』연구결과의 3장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산수단의 소유 여부를 기준으로 한 마르크스의 지배와 피지배 계급 분석으로부터 본격화되어, 계급-계층 논쟁으로 발전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국가 관료제 및 시장제도에 따른 위계적 서열, 전통적 위계질서 잔존, 복잡한 생산관계 발전 등에 따라, 현대에는 class를 계급과 계층 모두에 활용하고 있다.

계층 역시 계급과 같은 위계적 서열 개념이다. 사회적 상위와 하위로 구별되어 주-종의 성격을 드러내는 불평등한 현상을 계층구조라고 칭할 수 있다. 특히 한 사회에서 자원배분의 불균형이 초래하는 인간과 인간 간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 및 삶의 양식 차이를 계층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계층 간 위계를 초래하는 자원으로는 정치권력, 직업, 재산과 소득수준, 교육수준, 네트워크 등 사회적 자본이 대표적이다.

계층 연구의 기본적 분석 대상은 개인이다. 그러나 개인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집단화되어 있다는 것에 착목한다. 따라서 한 사회를 구성하는 인간 집단들의 상호 구별되는 삶의 실태, 행위, 의식이 계층 연구의 주된 관심이다. 계층은 하나의 제도이다. 이 위계적 제도 하에서 개체인 개인들은 개별적인 역량이나 능력만으로 그 구조를 바꾸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집단으로 구성된 계층이 일정한 역량 또는 능력을 지닌 범주가 된다. 이렇게 상정할 때 정책적 효과성도 높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계층 구조 및 그 변화 실태를 중심으로 북한 사회의 변화 현황을 다룬다. 특히 2012년을 기점으로 한 김정은 집권 전후 북한의 계층 변화 실태를 2012년 이후 탈북한 탈북민 구술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본다. 주요 내용은 상중하 층의 구성(구성비, 변화), 생활수준(소비수준, 식의주 불평등), 소득(소득수준 및 수입불평등), 직업 및 경제활동, 교육(학력의 영향 및 교육투자 수준), 건강 및 의료비 부담, 체제인식 및 계층 차이와 차별 인식, 네트워크 및 계층 이동성이다.

II. 계층 구성: 구성 비율과 변화

북한은 전통적으로 정치신분적 위계에 따른 핵심, 동요, 적대 계층이란 위계질서를 기본으로 한다. 그 비중 및 구성으로 먼저 북한주민의 1% 이내인 백두혈통과 만주 항일빨치산 혈통 중 김정은 측근 세력이 있다. 그들 귀족세력 외에 전체 주민의 계층구성을 보면 핵심계층은 약 27%, 동요계층은 약 45%, 적대계층은 27% 수준이다. 경제적으로 고난의 행군 이후 시장화의 진전으로 신흥 부유층과 중간 상인 등이 형성되며 생활수준에 따른 계층구조가 형성되었다. 이와 더불어 직업적으로 2차 산업인구가 축소되고, 농어업을 중심으로 한 1차 산업인구가 급증대하였으며, 시장경제가 발전하며 3차 산업인구가 증대하였다. 따라서 전통적인 토대 요인 위에 경제적 요인이 결합되어 정치경제적 위계에 따라 상층, 중층, 하층이 구성된다.²⁾

2012년 이후 김정은 시대 계층 구성 및 구성비를 보면, 군 내에서 상층은 최상층인 핵심 간부 15명 정도와 그 가족들, 그리고 먹을 알 있는 부서의 과장급들 가족, 도시에서 제법 크게 장사하거나 재주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10%이다. 중층은 농촌지역 군 단위 기준으로 인구를 10만 명으로 볼 때 한 2~3만 명이다. 나머지 하층이다.³⁾ 또 다른 군 단위 계층 구성 및 그 구성비 관련 구체적 실태 구술은 다음과 같다.

“우리 000군 인구가 내가 있을 때 공식적으로 2만7천6백83명인데 리당비서가 12명이에요. 리당비서가 열둘이고 공장기업소 초급당비서가 한 70~80명 되요. 대개 그런 사람들이 잘 살고 장사나 비법하는 사람들 해서 상층은 총 합치면 100명이면 한 10%, 우리 동네 볼 때 우리 동네가 30

2) 박영자, “체제변동기 북한의 계층세대지역 균열: 행위자 모형에 기반한 상황과 구조,” 『한국정치학회보』 제46집 5호, 2012, p. 179.

3) (함북, 50대 대졸 남성, 협동농장 간부 출신, 2012년 탈북)

가구인데, 이 30가구 중에 잘사는 사람, 못사는 사람, 중층인 사람을 놓고 보게 되면, 세 끼로 잘 먹는 사람이 10~15%예요. 어떤 때 하루 세끼는 못 먹어도 두 끼는 먹고 사는 사람이 10~15%고 나머지는 그저 하루 한 끼씩 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저 목숨을 연명하며 사는 사람이 그저 한 70% 되요.” 4)

주목할 점으로 당원 내에서도 상중하로 나뉘어진다고 한다. 군 단위 주민 전체로 보면 10%가 상층부인 데, 당일꾼 전체에서 약 30%가 상층부이고, 중층부가 약 40%, 그리고 나머지 30%는 하층이다. 2014년 현재 북한 내 당원수가 500만 명 정도인 데, 고난의 행군 이전까지 340만 명 수준이던 당원이 김정일 시대 500만으로 늘었고, 김정은 시대에는 이 수가 고정되었다고 한다.⁵⁾

이 구술에 기초해 북한의 조선노동당원을 500만 명이라고 설정하고 그 내부 계층 구성비를 추론해 보면, 당원 중에서 150만 명(30%)은 상층이고, 200만 명(40%)은 중층이며, 150만 명(30%)이 하층이다. 당원 내부에 계층균열도 비교적 뚜렷해진 것이다.

선행연구까지를 종합하여 전체적으로 2000년대 시장화 이후 계층 구성비 변화 추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0년대 중반 이후 ~2009년 화폐개혁 이전 탈북한 탈북민들의 구술을 종합할 때, 상층이 10~30%, 중층이 30~50% 수준, 하층이 20~60% 수준이었다.⁶⁾(박영자 2009)

4) (양강도, 60대 도당학교졸 남성, 군단위 2급기업소 초급당비서 출신, 2014년 탈북)

5) (양강도, 60대 도당학교졸 남성, 군단위 2급기업소 초급당비서 출신, 2014년 탈북)

6) 박영자, “2003년 <종합시장제> 이후 북한의 주변노동과 노동시장,” 『한국정치학회보』 제43집 3호, 2009.

둘째, 화폐개혁 이후 2011년까지 탈북한 탈북민들의 구술을 종합할 때, 시장경제 시스템이 복귀되며 상층이 10~20%, 중층이 30~40%, 하층이 40~60% 규모이다.⁷⁾

셋째, 본 연구에서 심층면접한 2012년~2014년 사이에 북한을 떠난 탈북민들의 구술을 종합하면,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 상층은 10~15%, 중층이 20~30%, 하층이 60~70%이다.

그 변화 특징을 정리하면, 첫째, 최상층의 구분이 분명해지고 있다. 둘째, 상층 비율의 구간 및 스펙트럼이 좁아졌다. 셋째, 중층의 비율 구간 역시 줄어들어 추세이다. 넷째, 하층의 규모가 커지는 추세이다.

다만 이 구성비 진단에서 북한주민들이 이전 보다 삶의 기대 수준이 커지고 생활수준도 다소 높아졌다는 전제에 따라, 상대적 생활수준 인식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지역별로 생활수준의 차이가 더 커졌다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Ⅲ. 생활수준 : 소비수준과 식의주 불평등

북한과 같이 공식 월급이나 배급으로 살 수 없으며 각종 비법과 뇌물 등을 매개로 경제가 운영되는 사회, 그리고 공식 소득과 비공식 소득이 불일치하며 은행 등 공식제도를 통해 자신의 재산을 축적할 수 없는 사회에서는, 대개 일반주민들이 계층을 가르는 주요 기준은 소비수준을 포함하는 생활수준이다. 더불어 주목할 점은 일반적으로 경제적 요인이 계층구조 분석의 주요 요인이나, 북한과 같은 정치우위 사회에서는 2015년 현재까지도 권력이 계층을 가르는 가장 큰 요인이다. 그 실태에 대한 구술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7) 박영자, “체제변동기 북한의 계층세대·지역 균열: 행위자 모형에 기반한 상황과 구조,” 『한국정치학회보』 제46집 5호, 2012.

“총괄적으로 보면 권력이죠. 권력이 있는 사람은 잘사는 거고 권력이 없는 사람은 못사는 거고. 특히 먹을 알 있는 권력이죠. 제가 왜 이 소리 하는가. 예를 들어서 내가 군당부장이다. 부장인데 선전부다. 선전부 계통이라는 게 힘이 없잖아요. 그 저 나가서 말로 하루 종일 강연이나 해주고 그저 선전사업이나 하고 들어오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권력을 써야 되겠는데 쓰지 못하잖아요. 밑에 사람, 노동자들도 머저리들이 아니니까 또 내가 저 사람한테 고여야(뇌물) 되겠는가 이 사람한테 고여야 되겠는가 하는 거 알고 고이기 때문에, 권력을 가져도 정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은 잘사는 거고, 정확하지 못한 권력을 가지고 열뜬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잘 못사는 거고. 먹을 알이 있는 지위라고 기본으론 조직부 당생 활지도과, 그 다음에 행정위원회를 놓고 볼 때는 계획과, 지령실, 자재공급과 간부들”⁸⁾

장사해서 잘사는 사람들도 있는 데, 그들도 대개 권력도 그만큼 받쳐주면서 장사를 해야 잘산다. 그 외에 가족 중 해외 파견을 나간 사람이 있는 집들이 잘산다고 한다.⁹⁾ 즉, 권력과 부가 결합되어야 상층을 이루는 것이다.

소비수준으로 볼 때 2012년 평성시 4인 가족 기준으로 계층구조를 파악하면 한 달 소비액이 상층 300달러, 중층 100달러, 하층은 하루 벌어서 먹고 살기 때문에 달러로 소비수준을 평가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 구체적인 실태 구술은 다음과 같다.

8) (양강도, 60대 도당학교졸 남성, 군단위 2급기업소 초급당비서 출신, 2014년 탈북)

9) (평양, 20대 대학입학 남성, 대학생 출신, 2013년 탈북)

“4인 가족을 보통으로 볼 적에 한 달에 100달러 이상을 쓰면 그게 잘 쓰는 축은 못 되지만은 대부분 사람들, 보통 사람들인 경우에는 장사 그저 장마당에 나가서 겨우 장사하는 사람들인 경우에는 한 100달러 정도는 쓴다고 생각합니다. 부유층이다 하게 되면은 한 달에 한 300달러. 그런데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은 뭐 평양에 많긴 하겠지만 그 사람들이야 뭐 굉장히 많이 쓰겠죠. 그런데 어쨌든 300, 한 달에 300달러 이상 쓰게 되면 부유한 축에 속합니다. 못 사는 사람들인 경우에는 아...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 오늘 나가서, 장마당 나가서 상품을 팔고 나오는 이득금으로 쌀을 사서 먹어야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제일 못사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거보다 더 못사는 사람들도 있지요. 손 달구지를 끌고 다니면서 짐을 날라주고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 물론 그런 일을 처음으로 시작을 해서 잘 살게 된 사람들도 있지만은 대체로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좀 못사는 사람들” 10)

생활수준을 기준으로 볼 때, 그 주요 지표는 주택 수준, 각종 가전기구 및 탈 것들, 예를 들어 텔레비전의 질, 냉장고, 세탁기, 자전거, 오토바이, 식생활 수준이다. 그 구체적 실태 구술은 다음과 같다.

“북한에서 잘산다는 기준을 우선 어떻게 놓고 보는가. 북한에서 잘산다하면 우선 집에 텔레비전이 있는가. 좋은 텔레비전인가. 텔레비전이 있고. 냉동기가 있고. 세탁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화장실은 집에 다 없어요. 바깥에 다 있고. 그 다음에 자전거가 있고. 오토바이가 있고 이런 사

10) (평남 평성시, 30대 대졸 남성, 연구원 출신, 2012년 탈북)

람들이란 말야. 그리고 먹는 거는 대체로 보면 반찬 그저, 이 찬이 그저 한 7가지 정도...” 11)

“이렇게 놓고 보면 그들의 생활수준은, 군대책임 비서, 군안전부장, 군보위부장, 군검찰소장, 군재판소장, 이런 군 안에 거물들. 이 사람들이 생활수준이 제일 높은 상류층에 속한단 말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 소위 국가무역을 한다 하면서 하는 무역거래기관 일꾼들이 있고. 이들의 생활이라는 거는, 이 사람들은 우선, 이제 그 5명은 내 부른 사람들은 대체로 보면 국가에서 주는 차가 있단 말입니다. 전용차가. 전용승용차가 있는데, 자기 사업을 그만두면 그 차는 국가에다 내놓게 돼 있고, 자기 차는 아니거든요. 집은 다 독집 쓰고 삽니다. 다 독집을 쓰고 사는데 그저, 그들이 쓰고 사는 집 평수가 그저 한 70평¹²⁾정도. 책임비서네 집 같은 거는 100평 나마 뵈니다...중류층은 장마당에서 장사하며 세끼 밥먹는 가족들, 중하층 간부들. 하류층은 강냉이밥 2끼 먹기 힘듭니다. 노동자, 농민, 이 하류라는 게 제일 그 하생활이라는 게 노동자, 농민생활인데. 그들은 하루에 강냉이밥 2끼 먹기도 힘듭니다. 집이라는 건 뭐...지금 이 칸(10~15평방미터 수준) 만 한 거 쓰고 사는 사람이, 대체로 그저 이 칸만 한 건 쓰고 살겠지요. 아파트 사는 사람도 있고, 대체로 다 땅집(일반주택)입니다. 그런데 이런 노동자, 농민들은 크게 아파트에도 못 들어가요. 돈이 있어야 아파트 들어가죠.” 13)

11) (함북, 50대 대졸 남성, 협동농장 간부 출신, 2012년 탈북)

12) 북한의 주택 규모를 나타내는 평 기준은 평방미터인 ㎡이며 실주거지인 실내 기준이다. 따라서 텃밭 등을 제외한 주택 70평은 한국 아파트 21.175평형이며, 100평의 경우 한국의 30.25평형 아파트를 생각하면 된다.

한편 전통적 귀족계급이라 할 수 있는 김정은 가계 및 측근인 최상층의 생활수준은 소위 사치제로 상징된다. 북한에서 현재 사치제를 쓰는 특수 집단은 약 2~3000명 정도 되며 중앙당 부부장 이상의 직급에 있거나, 김정은의 호위부 중에서도 근접 경호하는 자들이다. 이들이 사용하는 물품은 대부분 중앙당 공급소에서 배급을 받는다. 마시는 물 외에는 모두 다 해외 제품이며 배급품과 선물을 구별하여 공급받는다. 이 물품들은 특수단위가 하는 밀수를 통해 들어온다. 특수단위의 밀수는 주로 국가가 특수성을 내세워 구입하는 물품들이며 대부분 김정은의 기호품 구입과 특수 집단을 위한 사치제 구입이다. 세관을 통과하기는 하나 공식적으로 관리하지는 않고 국가통계에 들어가지 않기에 밀수로 볼 수 있다.¹⁴⁾

주목할 점으로 지역에 따른 계층별 생활수준 차이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 특히 김정은 시대 들어 지역별 주민 생활수준의 불평등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한다. 함경북도 출신으로 2011년 말~2012년 초의 비슷한 시기 북한을 떠난 두 20대 여성의 구술을 통해, 생활수준이 높은 도시 라선시와 생활수준이 낮은 농촌 군의 계층별 생활실태를 비교해 보자.

“상층에 사는 게 집이 한 120평~140평. 그리고 돈이 한 인민페 한 30만 위안 정도. 먹는 거는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 그냥 맘대로...중층은 인민페 한 3만부터 집은 한 40평, 50평. 하층은 그 이밥 같은 거는 그냥 라진 사람들은 다 먹고 사는 거예요.”¹⁵⁾

“상층은 세끼 이밥 먹고 옷도 사 입는 사람들. 중층은 굶지 않고 먹고 살 정도로, 쌀이 좀 있어요. 이밥은 못 먹어도 내 강냉이밥 먹었지. 그럼

13) (함북, 50대 대졸 남성, 협동농장 간부 출신, 2012년 탈북)

14) (평양, 50대 대졸 남성, 외화벌이 간부 출신, 2014년 탈북)

15) (함북 라선시 20대 고등중졸 출신 여성, 2012년 탈북)

다음해 돌아오는 해까지 그 강냉이 남겨서 옷이나 신발 사 신을 정도. 하층은 거의 막생활이에요. 오늘 한 끼 먹고 다음 끼는 없어가지고 어떡하지 하는 생각으로. 어떤 때는 돈 많이 벌면 아, 오늘은 제대로 먹네 하고 밥 먹고. 어떤 날엔 못 벌면 그냥 죽 먹고. 이렇게 살다가 어떤 때 돈 조금 많이 벌게 되잖아요. 그럴 때는 아 모르겠다. 오늘 인간답게 식사해보자 그러고 고기 사먹고 그래요. 그런데 대부분 못 먹어요.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의 인식이 내가 죽 한사발 먹기보다 밥 한 술 먹겠다 이래요. 고난의 행군 시기는 사람들이 죽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이젠 하층이라도 내가 왜 죽 먹어야지. 강냉이밥 한 술 먹으면 먹었지, 죽 안 먹어. 이렇게 생활이나 의식수준이 좀 높아졌어요. 이런 상층은 15%나 될까. 이 정도 밖에 안 생각해요. 중층이 한 25%. 그 다음 대부분 못 사는 하층” 16)

특히 김정은 시대 들어 지역별 생활수준 격차가 훨씬 커졌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그 이유로 최근 탈북민은 김정은이 2012년 집권하면서 각 도·시·군·리 모든 지역단위에서 각종 원천을 찾아 수출해서 지역을 운영하라고 지시를 내렸기 때문이라고 한다. 지역별 불평등 심화가 초래하는 계층 불평등 구조와 관련해 그 변화 실태와 이유에 대한 구체적 실태 구술은 다음과 같다.

“김일성 있을 때 옛날에 70년대 80년대 중반기까지 김일성이가 이 대한민국 땅을 보고 부익부 빈익빈 나라라고 했는데 거꾸로 이제 북한이 부익부 빈익빈이 됐어요. (김정일 때) 2009년도까지

16) (함북 20대 고등중졸 출신 여성, 2011년 탈북)

완전히 상중하 층이 구별되었어요. 그러다 김정은이 출마를 하면서 내놓은 게, 국가가 제구실 못하고 또 현재 국가가 생산돼 나올 수 있는 원천지가 없기 때문에 매개 도시군 당에 내려 먹인 게 너네 매개 도시군 당에서 나올 수 있는 수출원천을 100% 찾아서 자체무역 하라. 이렇게 됐거든요. 무산광산이라 할 때는 무산광산은 철광석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철광석이라도 너네 중국에 팔아라. 팔아서 노동자들을 먹여 살리며 기업을 운영해라. 이런 원칙을 내놔어요. 그러다나니까 이제는 각 도시군, 리들까지도 자기네가 수출원천을 찾아서 중국에다 수출할 수 있는 수출원천 100% 다 찾아서 수출해요. 그러면 000군에서 수출 많이 했으면 잘살 거 아니에요. 또 수출원천이 없는데서 수출 못하면 못살 거 아니에요. 지금은 공장, 기업소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근로자) 먹여 살리라고 압박을 가해서 이중삼중으로 압을 받다보니 허리를 못 펴죠.” 17)

Ⅳ. 소득과 직업 : 소득수준 및 계층별 직업

북한주민들의 개인 소득수준 실태 파악은 매우 어렵다. 경제구조처럼 소득구조 또한 공식 및 비공식 소득이 혼합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공식 직업이나 월급을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사회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다. 대개 북한주민들은 시장경제 및 부패구조 등 다양한 비법 활동을 통한 소득으로 일상생활을 꾸려가고 있다. 따라서 당국이 비사회주의 검열 등을 통해 단속하면 언제든 재산과 소득 원천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누가 돈 많이 있는지 주변에서 다 알면 강도치고 뺏

17) (양강도, 60대 도당학교졸 남성, 군단위 2급기업소 초급당비서 출신, 2014년 탈북)

아 가니까, 자기 집안에 돈이 얼마큼 깔아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 고 한다.¹⁸⁾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5년 이후 현재까지 약 30년에 걸친 시장경제 진화 및 생활수준의 변화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계층별 소득수준을 추론할 수 있는 지표를 확인할 수 있다. 하나는 앞선 생활수준과 함께 살펴본 소비수준이며, 또 다른 하나는 달러 또는 인민폐를 기준으로 한 개인의 보유 또는 운용 자금, 즉 “깔린 돈” 이다. 대개 우리의 저축액(보유 현금)이나 장사 또는 사업 밑천을 의미한다.

보유 현금을 기준으로 북한에서 현재 최상층의 부자들로는, 중앙당 부부장이나 부장들 보다 군부의 장령들이나 군대 소속 회사 사장들 중 부자가 많다. 부부장이나 부장의 권세는 하늘만큼 높아도 실제 자기 주머니에 돈이 많지는 않다고 한다. 북한 내에서 10만 불 이상 지니고 있는 사람은 1.5~2% 정도이며, 예금이 의미가 없고 은행에 저금하면 오히려 감시 대상이 되기에 대체로 현금을 집에 보유하고 있다. 거액의 돈을 쓰다가 걸리면 계좌추적과 가택수사가 들어가기에 걸지로 수수하게 다니고 돈은 없는 척 생활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부자들은 검열에 대비해 안전부나 보위부 직원들과 호의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이런 부자들(돈을 10만 불 수준으로 모은 사람들)의 경우, 재테크 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돈을 벌기는 쉽지만 쓰기가 어렵다’ 라고 하며 평양에서 거주하기를 희망한다. 지방 도시보다는 평양에서 돈을 쓰기가 더 수월하기 때문이다. 평양에 살기 위해서는 군부대 예술선전대에 취직하여 군인의 신분으로 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한다.¹⁹⁾

일반 북한주민들의 장사나 비상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깔린 돈’ 여부는 상층과 중층을 구분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전체적으로는 달러 보유수준으로 계층을 구별할 수 있으며, 국경지역의 경우 인민폐를 기준으로 한다. 달러가 일상 화폐로 기능하는 평양의 경우, 상층은 달러 3만 달러 정도를 보유하고, 중층은 1~2만 달러 정도, 하층은 외화가 없고 북한 돈만

18) (양강도 혜산시, 40대 대졸 남성, 국가기관 간부 출신, 2011년 탈북)

19) (평양, 50대 대졸 남성, 외화벌이 간부, 2014년 탈북)

조금 있는 사람들이다.²⁰⁾

신의주 북중무역 및 평성 도매시장 권역에 있으나, 농업이나 광업 등 1차 산업종사자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는 평안북도와 황해도 등 내륙지역의 경우도 달러를 기준으로 계층을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수준은 평양-평양-신의주에 비해 한참 뒤떨어진다. 평안북도나 황해도를 기준으로 할 때, 달러가 한 5천 정도만 있으면 상층이고, 1천 달러 정도만 있어도 중층이며, 하층은 동일하게 달러가 없는 사람들이다.²¹⁾

중국과의 무역 및 사업 등을 매개로 한 국경지역의 경우 상층이 인민폐로 3만 위안 이상을 가지고 있고, 중층이 3만 위안 이하, 그리고 하층은 하루 벌어서 살기에 외화가 없는 이들이다. 한편 부의 수준을 공개할 수 없는 북한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3만 위안이 있다고 하면 실제로는 10만 위안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²²⁾

직업은 현대 사회에서 계층 위계의 기준이 된다. 북한의 공식 국가체계가 불안정하여 직업을 기준으로 소득이나 부의 수준을 진단하기는 어려우나, 앞선 탈북민 구술 등에서 드러나듯이 북한사회에서도 직업이 계층을 드러내는 절대적 기준은 아니지만 여전히 계층을 구별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군단위로 볼 때 상층은 부장급 이상 직책에서 군을 유지하는 간부들로, 중앙 배급이 이루어지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다. 구체적 실태 구술은 다음과 같다.

“상층부라 할 때에는 우리 000군을 놓고 볼 때에는 책임비서, 조직비서, 선전비서, 근로단체비서. 비서들이 많아요. 부문당위원회 비서가 많거든요. 근로단체비서, 농업비서 뭐 이렇게 많아요.

20) (평양, 40대 대졸 남성, 외화벌이식당 사장 출신, 2011년 탈북)

21) (평북, 40대 고등중졸 여성, 사무직/자영업 출신, 2011년 탈북); (황해북도, 40대 고등중졸 남성, 군장교 출신, 2012년 탈북)

22) (양강도 혜산시, 40대 대졸 남성, 국가기관 간부 출신, 2011년 탈북)

그 당위원회 있는 비서급들과 그 다음에 행정위원회에 있는 기사장, 부기사장, 설계부기사장, 재무기사장 등 또 많거든요. 행정기관에 기사장이라는 게 또 많아요. 그 기사장급들이 대개 상급들이예요. 그 사람 손과 머리로 한 개 군이 유지되고 운영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공급만은 최우선이에요. 매개 시군에 당위원회, 인민위원회, 행정위원회가 있어요. 이 3가지 부류에 있는 상급 간부들이 상층에 속해 있고, 중층은 그 밑에 한 마디로 말하면 당일꾼, 행정일꾼들이죠. 그저 그렇게 놓고 보면 되요. 제가 2급 기업소 초급당비서였는데 그 정도도 중층이죠. 하층이야 매 단위 지도원들, 지도원급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하부말단의 노동자들까지죠.”²³⁾

이 구술에서 언급된 계층별 직업을 기본으로 해서 부가되는 그 외 직업군들은 다음과 같다. 상층의 직업군은 시군 각각에 당위원회, 인민위원회, 행정위원회에 상급 간부들, 당조직부·안전부·보위부·검찰 부장급들, 외화별이 사장들, 돈주나 도매상 등이 있다. 중층의 직업군에는 각 단위 중급의 당·행정 간부, 매대상인, 교원, 예술인, 기술자, 지식인 등이다. 하층은 각 단위 지도원급, 노동자, 농민 외에 최하층으로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소외 계층들이다.

V. 교육과 건강: 학력의 영향, 교육투자 수준, 의료비 부담

북한에서도 기본적으로 대학을 졸업해야 ‘먹을 알’ 있는 직위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학력은 계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북한의 시장경제 확장 이후 사교육이 상당히 번창하였다. 특히 북한주민들도 고난의

23) (양강도, 60대 도당학교졸 남성, 군단위 2급기업소 초급당비서 출신, 2014년 탈북)

행군 이후 자식을 1~2명 정도 밖에 낳지 않는 상황이 일반화되면서 자식에 대한 교육투자 열기가 높아졌다.

최근에는 의식주 등 생활수준을 넘어선 교육투자 및 건강-여가 생활에 따른 불평등 양상도 심화되어, 주민 일상생활에서의 불평등성이 구조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실태 구술은 다음과 같다.

“불평등이 지금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는 거 같아요. 교육은 저희 때도 돈 있는 부모들은 다 이렇게 사교육을 시켰어요. 그런데 지금은 농촌에 못사는 동네라도 그 중 좀 밥 먹고 산다 싶으면, 가정교사라기보다도 그냥 돈을 쥐어주는 정도는 아니라도, 컴퓨터 집에서 배워주면 저녁에 식사 같이 함께하고 또 그 사람이 좀 힘들다 하면 뒷받침으로 도와주고 이렇게 해요.”²⁴⁾

교육열이 높아지면서 자신은 북한에서 살만하지만 자식의 미래를 생각하면 안되겠다 싶어, 자식과 함께 탈북을 하는 부모들도 증대하는 등 탈북요인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교육수준이 높다고 하더라도 ‘먹을 알’이 없는 직업 및 직무에 있거나, 특별한 재능이 사람들은 본업을 제치고 기초 생계를 꾸려나가야 한다. 이로 인해 지식인들 사이에 상당한 전업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그 실태 구술은 다음과 같다.

“국가 연구소에서 조수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2002년도에 그 살기가 어찌 어렵던지 그때 아마 최절정이었던 거 같아요. 남들은 90 몇 년도라는데. 저는 더 힘들어, 어찌 그런지 나는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연구소에 있다가는 굶어죽겠더라고요. 뭐 이 사람들이...연구소 조수, 그 연구사들이 그 다음 준박사까지도 그저 먹고 살 이

24) (평북, 40대 고등중졸 여성, 사무직/자영업 출신, 2011년 탈북)

야기만 해요. 아침에 연구소 조회 나오면, 앞에서 우리는 나가 무슨 시약을 구하겠습니다. 무조건 구해오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서는 텔레비전 수리도 하고 일한단 말입니다. 연구 사업이 없단 말입니다. 그럼 나가서 돈 벌어서 좀 주고, 실장들이랑 연구사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불쌍한 상황이면 나가서 좀 벌여가지고 좀 준단 말입니다. 서로 이렇게 하면서 했었는데, 그게 한 두 해지…이거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래서 누군가 00중 학교에 00교원이 없다. 그래서 읊기고…” 25)

한편 북한사회도 고령화가 진행되며 건강으로 인한 계층 간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말로 무상치료지 다 장마당 가서 약 구하고, 돈 없으면 죽는” 상황 때문이다.²⁶⁾ 이와 관련한 구조적 실태 구술은 다음과 같다.

“저희 삼촌이 의약품관리소에서 일했어요. 유엔 아동기구에서 보내는 약들, 이 약을 정말 아파서 쓰러져 가는 사람, 아이들한테 주라고 온 건데 북한정부가 의약품관리소라는 걸 내놓고 그 약을 거기다 넣는 겁니다. 그럼 뒤에서 뒤빼기 간부들한테만 주고, 자기 인맥으로 관계있는 사람들이나 주고, 또 평백성이 살려면 비싸게 팔고, 이렇게 만들어 났거든요.” 27)

Ⅵ. 의식 : 체제인식, 차이/차별 인식, 저항-포기 의식

북한의 사회 집단 또는 계층별 체제 인식은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2010

25) (양강도 혜산시, 40대 대졸 남성, 국가연구원 조수/학교교원 출신, 2013년 탈북)

26) (평북, 40대 고등중졸 여성, 사무직/자영업 출신, 2011년 탈북)

27) (양강도 혜산시, 40대 대졸 남성, 국가기관 간부 출신, 2011년 탈북)

년~2012년 북한지역을 떠난 탈북민 200명을 대상으로 2012년 11월~2013년 1월까지 설문지 조사기법으로 이루어진 통계분석 연구결과에 기초할 때 다음과 같은 양상을 보인다.²⁸⁾

교차분석 결과 응답자들의 ‘북한 정권과 체제에 대한 불만정도’는 매우 높음(29.5%) > 높은 편(27.0%) > 보통(26.5%) > 낮은 편(8.5%) = 매우 낮음(8.5%) 순으로 나타났다. 심층면접을 통한 질적 조사 결과와 동일하게 탈북민들의 북한 정권과 체제에 대한 불만정도가 아주 높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불만이 높았다는 응답이 56.5%로 약 60%에 해당한다. 각 사회집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카이스케어 검증 결과, 성별과 정치신분 계층 집단에서 유의확률(p-value)이 각각 0.069와 0.072로 나타나, 90%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 차이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북한 정권과 체제에 불만수준이 높았는데, 그 이유는 정치적 요인으로 인한 북한 정권과 체제와의 갈등이나 비사회주의의 검열 등으로 인해 탈북하는 경우가 남성들이 훨씬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정치신분 계층별로는 불만이 높았다는 응답이 하층(64.7%) > 상층(61.1%) > 중층(48.4%) 순으로 나타났다. 소위 토대(출신성분)에 따른 정치신분적 기준에 따라 적대계층으로 분류되어 북한 정권과 체제로부터 소외되었던 하층이 가장 불만이 높았다. 다음으로 상층이 체제 및 정권 불만이 높게 나타났다.

2012년 40명의 탈북민 표본을 통한 연구 결과에서 체제불만이 가장 높은 층은 동일하게 하층이었다. 그러나 그 다음이 중층이고, 상층 집단에서 체제불만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²⁹⁾ 상층의 체제에 대한 인식 차이

28) 5점 척도로 구성된 구체적 질문문항은 “북에 사실 때 선생님의 생각 또는 경험을 말씀해 주세요. 북한 정권과 체제에 대한 불만 정도는 어떠했나요?” 였다. 박영자, “북한주민의 ‘핵무기 인식’ 및 ‘정치요인 의식과의 상관성’,” 『2013년 북한연구학회 춘계학술회의 자료집』, 2013. 4. 25. pp. 24-25. 각 집단별 교차분석의 주요 결과는 다음 <표 1>과 같다.

29) 박영자, “체제변동기 북한의 계층·세대·지역 균열: 행위자 모형에 기반한 상황과 구조”, 『한국정치학회보』, 제46권 제5호, 2012.12. p. 188.

는 표본의 규모로 인한 오류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표 1〉 북한 정권과 체제 불만 정도

단위: % (명)

조사 주제			북한 정권과 체제 불만도					유의 확률 (양측검정) P-value
변 수	범 주	척 도	매우 낮음	낮은 편	보통	높은 편	매우 높음	
전 체			8.5%	8.5%	26.5%	27.0%	29.5%	
			17	17	53	54	59	
성	남성		11.5%	5.1%	17.9%	29.5%	35.9%	.069+
	여성		6.6%	10.7%	32.0%	25.4%	25.4%	
탈북 년도	2010		11.7%	5.2%	29.9%	26.0%	27.3%	.605
	2011		5.9%	10.9%	22.8%	26.7%	33.7%	
	2012		9.1%	9.1%	31.8%	31.8%	18.2%	
정치 신분 계층	상층		16.7%	5.6%	16.7%	33.3%	27.8%	.072+
	중층		5.2%	9.3%	37.1%	24.7%	23.7%	
	하층		10.6%	8.2%	16.5%	28.2%	36.5%	
경제 계층	상층		12.5%	0.0%	62.5%	12.5%	12.5%	.186
	중층		6.6%	10.7%	28.9%	28.9%	24.8%	
	하층		11.4%	5.7%	18.6%	25.7%	38.6%	
	모름		0.0	0.0	0.0	0.0	100	
세대	20대		12.5%	12.5%	33.3%	25.0%	16.7%	.487
	30대		8.0%	8.0%	28.0%	30.0%	26.0%	
	40대		4.8%	4.8%	22.2%	28.6%	39.7%	
	50대~		10.3%	10.3%	23.1%	23.1%	33.3%	
지역	도시		9.2%	7.0%	27.5%	30.3%	26.1%	.234
	농촌		6.9%	12.1%	24.1%	19.0%	37.9%	

+: $p < .1$: 90% 신뢰수준, * $p < .05$: 95%신뢰수준, ** $p < .01$: 99% 신뢰수준, *** $p < .001$: 99.9%신뢰수준

출처: 박영자, “북한주민의 ‘핵무기 인식’ 및 ‘정치요인 의식과의 상관성’,” 『2013년 북한연구학회 춘계학술회의 자료집』, 2013.
4. 25. p. 24.

또한 대개 북한의 정치신분적 상층 계급은 목숨이 위태로운 정치적 배제나 그에 상응하는 위험을 겪지 않으면 탈북하지 않기에, 상층 응답자 표본의 편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표본의 편향성을 고려해도 주목할 점으론, 심층 면접을 통해서 드러난 상층들의 복잡한 의식구조이다. 즉, 정권과 체제에 대한 불만이 그 실태를 잘 알고 있는 상층들 사이에서 더 높을 수 있다는 점이다.

한편 김정은 체제와 관련하여, 2009년도 김정은이 후계자로 알려지면서 상당수 주민들에게는 기대감도 높았다고 한다. “후계자가 나이가 젊고 새 세대, 완전히 젊은 세대니까 외국이라든가 세계에서 돌아가는 이걸 참 많이 느꼈을 것이기 때문에 북한과 우리 주민들을 개혁개방 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던 것이다.³⁰⁾ 그러다 최근에는 기대감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김정은 정권 들어서 “지금은 각 도시군리 행정기관부터 공장, 기업소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각 단위를) 먹여 살리라고 압박을 가해서 이중삼중으로 압박을 받다보니 허리를 못 펴”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³¹⁾

그렇다면 어떤 계층들이 북한 체제에 저항할 수 있을까? 조직적 행동의 가능성은 어떠한가? 어떤 세력이 움직이면 북한사회에 정치적 기회 창출이 용이할까? 이와 관련한 구술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어떤 적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들고 일어날 거죠. 그게 무슨 군인인가 대학생인가 청년인가 아줌마들인가가 아니고. 나한테 반감을 가진 사람이 먼저 들고 일어나지 않을까요. 적대계층이죠. 그 체제나 사람한테 피해본 사람이 먼저 들고 일어나죠. 당연히 그렇죠.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 김정은이한테 어떤 압박을 받고 어떤 피해

30) (양강도 혜산시, 40대 대졸 남성, 국가기관 간부 출신, 2011년 탈북)

31) (양강도, 60대 도당학교졸 남성, 군단위 2급기업소 초급당비서 출신, 2014년 탈북)

를 받았다면, 그런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해요.”³²⁾

“저항? 저항을 할 수 있다 하는 사람은 사리원 시 인구 100%로 봤을 때, 10%도 안 될 걸요. 당과 국가에 대한, 체제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체제 때문에 자기가 치명적으로 타격을 받은 사람. 말하자면 예를 들어 장사꾼이다 말하면 나 같이 자전거 한 10대 내다놔는데 10대 다 뺏겼어. 아 개 같은 새끼들 썩었다. 이거 하늘 좀 무너졌으면 좋겠다. 또는 전쟁을 했으면 좋겠다. 또는 이거 어케 망하지 않나 막 혼자서 투덜 투덜대지, 그렇다고 뭐 이렇게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야 뭐 이거 어떻게 못 해요.”³³⁾

“조직을 묶기는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해서 나 하나 처벌하면 좋은데, 나는 물론 내 8대, 4대 사촌까지 막, 사돈의 8촌까지 막 들이 캐고 집단수용소 막 들이쳐 넣으니까. 그게 무서워서 못하는 거지 솔직히 죽음이 무서워서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나 하나 잡아 죽이면 까짓거야, 우리 친구들 다 ‘야, 이거 들고 일어나자’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돈의 팔촌까지 들이 캔다니까.”³⁴⁾

그렇다면 간부층 중에 어느 정도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면 북한체제의 변화 조짐이 보일까? 이에 대한 의식 구술은 다음과 같다.

32) (양강도, 40대 고등중졸 남성, 사회단체 간부 출신, 2013년 탈북)

33) (황해북도, 40대 고등중졸 남성, 군장교 출신, 2012년 탈북)

34) (황해북도, 40대 고등중졸 남성, 군장교 출신, 2012년 탈북)

“아무래도 저 중앙당 쪽에 있는 간부들이 움직이면 더 낫겠죠. 군대도 당에 의해서 움직이니깐. 예를 들어서 총정치국이나 이거 다 당으로 보거든요. 군부라고 그래도 당으로 보잖아요. 총정치국. 아마 그쯤에서 움직이면 되지 않을까. “35)

“군부 내에서는 실지 군사지휘권 능력을 따지면 지휘관들이 낫죠. 그런데 당일꾼이 들고 일어나자 하면은 지휘관들은 쉽게 응할 수 있고. 그러니까 군대 내에서도 당일꾼들이 움직여야죠. 그러니까 당일꾼들이, 대대장 동지 또는 여단장 동지, 아 이거 뭐 술 한 잔 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이거 어케 해보지 않겠나하면. 여단장 같은 거는 흔하니까. 또 행정일꾼 자체가 당에 대한 배신감이 있으니, 말하자면 아무리 내가 여단장 왕별을 달고 있어도 당에 대한 내 신임(믿음)이, 당일꾼들보다 적거든요. “36)

한편, 불만이 있어도 저항을 조직화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나마 의식이 있는, 소위 ‘좀 켜 사람들’은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한 방어기제를 만든다. 이와 관련한 구술은 다음과 같다.

“잘못 태어났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가볍더라 고요. 할 수 없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 불만을 가지기 시작하면 막 그저 스트레스 받아서. 왜 그러나?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야, 하나도 공급이 되지 않고 뭐 아무 것도 안 줘서, 막 빠득빠득 살아가는 것만 해도 기찬데, 그저 가만 내버려두면 얼마나 좋아요. 못살게 계속... 무슨 놈의 상무는 그

35) (황해북도, 40대 고등중졸 남성, 군장교 출신, 2012년 탈북)

36) (황해북도, 40대 고등중졸 남성, 군장교 출신, 2012년 탈북)

렇게 많고, 단속하는 건 왜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이거 왜 이렇게 못 살게 구는가 그래도, 마음이라도 좀 편안하자. 그저 윗 사람한테 할 수 없이 조금 찔러주고 눈감고. 그 사람들 하나에게만 사업 잘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저...” 37)

또 다른 한편 앞서 살펴보았듯이 북한주민들 대부분이 계층별 차이와 차별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 특히 정보와 사회적 자본이 넓고 풍부한 상층이 타계층과의 차이 및 갈등 인식이 가장 강하다. 그 다음으로 하층이 타계층과의 차이, 차별, 갈등정도 인식이 높은 편이다.

VII. 네트워크와 계층이동성 : 공사 네트워크 결합 및 계층이동

관계(connections) 또는 사회적 네트워크(social network)는 사회적 결속과 안전망이라는 긍정적 기능을 한다. 그러나 부패를 초래하는 부정적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소위 아시아적 전통이라는 사회적 네트워크 중시 풍조는 발전국가 모델에서 빈번히 나타나는 데, 한국의 경우에도 21세기 현재까지 이 양상이 두드러진다.³⁸⁾

더욱이 북한과 같이 독재정치와 정치우위의 상업적 시장화가 진화되어 가산제 자본주의(patrimonial capitalism)적 특성을 지닌 체제는, 정치우위 질서에 따라 이루어지는 불평등한 교환과 높은 거래비용을 초래한다. 비민주적 환경에서 번성하는 정치우위 경제질서 때문이다.³⁹⁾ 그 기제는 각종 조세와 지대(rents) 결정권, 자원·기획·정보의 불균등한 분배 및 위계적 후견-피후견 제도를 통한 소수 지배연합의 공생이다.⁴⁰⁾ 그 구체적 실태에 대한

37) (함북 청진시, 50대 전문대 졸 여성, 예술단배우 출신, 2012년 탈북)

38) 김우식, “사회연결망이 뇌물의 부패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부패학회보』 16권 2호(2011), pp. 25-49.

39) Oliver Schlumberger, Structural reform, economic order, and development: Patrimonial capitalism,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vol.15 no.4 October 2008. pp. 622-649.

구술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북한에 형법이 있지만 형법으로 제정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 명의를 포고를 때립니다. 인민보안부 포고, 국가보위부 포고, 내각 00성 포고 등등. 예를 들면, 인민보안부에서 ‘전기선을 절단하는 자들을 엄벌에 처한다, 이 행위를 조장하는 기관, 기업소들도 엄벌에 처한다.’ 식으로. 형법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재판에서는 그 포고가 적용됩니다. 재판할 때 ‘인민보안부 포고 101호’에 따라서 피고 000를 노동수용소 10년 형에 처한다 이렇게 때립니다. 북한인민들은 아직 형법이나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그대로 감수할 수밖에 없는 데, 중앙당 조직부 검열이라든가, 지방지도과, 당생활지도과에 있는 사람들이 나서면 사람 죽이거나 살리는 수가 무지기로 나옵니다. 근데 사건이 제기된 다음에 간부를 만나려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피후견인)이 일상적으로 간부들(후견인)에게 잘 보이려 하고 때에 맞추어 선물을 합니다. 그리고 나같은 사람(후견인)은 어떤 사람들을 도와 주냐면, 향후 뇌물행위가 문제되었다고 해도 나를 노출시키지 않고 다 책임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돌봐줍니다.”⁴¹⁾

이러한 후견-피후견의 상호보호 관계는 북한사회의 중요한 제도로 자리잡았다. 공장, 기업소에서도 전통적인 안면관계를 넘어선 뇌물이 일상화되

40) Ronald Wintrobe, *The Political Economy of Dictatorship* (Cambridge Univ. Press, 1998), pp. 20-39; Bruce Bueno de Mesquita and Alastair Smith, *The Dictator's Handbook* (Public Affairs, 2011), pp. 4-15.

41) (평양, 50대 대졸 남성, 내각 관료 출신, 2011년 탈북)

어, 뇌물을 매개로 한 사업 연줄을 통해 부와 권력의 상승과 하락이 이루어진다.⁴²⁾ 이와 같은 상황은 해외에서 진행되는 무역에서도 일상화되어 있다. 예를 들어 수출입 관련 워크 배정 관련해서, 러시아 생산물이긴 하지만 러시아에 있는 무역대표부에게 무조건 거래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담당 무역상과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거래권을 주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⁴³⁾

이 과정에서 ‘권력과 부의 연계’가 제도화되고, 이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규모의 사유재산을 축적한 신흥 부유층이 형성된다. 또한 ‘계층이동의 기회’도 창출된다. 북한에 권력주도 후견주의가 제도화된 주요인은 북한식 수령독재로 인해 정치적 보호와 경제적 이익창출 기회를 원하는 수많은 피후견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정치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주원인은 출신성분에 따른 정치적 검열과 광범위한 비사회주의 검열, 그리고 수많은 교시와 교시 번복 등으로 정책변화가 잦은 북한 수령독재 시스템 때문이다. 경제적 필요는 생계문제 해결뿐 아니라 재산의 축적 및 사회적 지위 상승 욕구 때문이다. 따라서 독재정치가 관장하는 제재 및 규제로부터 보호와 처벌완화, 특혜 및 기회 등을 얻기 위한 평정서와 평가서 등 공문서 조작 및 각종 증명서 발행, 승진·취업·입학·알선 등을 매개로, 수많은 피후견인들이 후견인들을 찾아 관계를 맺으려 한다.

북한사회에서 시장화 이후 계층 상승의 요인으로 떠오른 것이 돈과 개인의 능력이다. 먼저 부를 통한 사회적 지위 향상에 대해 최근 탈북민은 그 실태와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구술한다.

“지금은 북한에 토대 안 봐요. 권력이 돈에 아부하는 시대다 이렇게 돼서 돈 있는 애들 더 우쭐해 있는데. 왜 그러냐, 권력은 조금만 하더라도 떨어지고 그 다음엔 개밥의 도토리잖아요. 뭐 숨

42) (양강도, 60대 도당학교졸 남성, 군단위 2급기업소 초급당비서 출신, 2014년 탈북)

43) (평양, 50대 대졸 남성, 외화별이 간부, 2014년 탈북)

도 못श्य요. 돈 없으면 독초라도 나가 팔아야 돼. 하지만 돈 있는 아이들은 뭐, 정치범도 돈만 찢어 주면 살아난다. 그러니까 돈이 최고다라고, 자본주의 시장경제 된지가 이제 얼마나 오래예요. 그러니까 자기 있는 능력으로 다 사는데. 어디 직장에 나갈 데가 있어요?” 44)

“북한은 지금 돈만 있으면 노동자도, 평민, 평백성도 땅땅거립니다. 간부들도 와서, 엘리트 간부들도 와서 때로 머리를 숙일 때도 있고. 돈만 있으면 살인범도 무죄로 나오고. 그저 강자와 약자의 투쟁인데. (협박이나 공모를 해도) 돈 많은 놈이 큰 죄를 짓고 돈 적은 사람이 작은 죄를 지어요. 그런데 여기서 죽는 거는 돈이 없는 사람이 그 범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에 가거나 처형을 당하는 거죠.” 45)

시장경제가 확장되면서 계층 이동이 가능하게 된 데에는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시장활동 과정에서 개인의 능력을 통해 하층에서 중상층으로 지위가 상승된 사람들에 대해 한 탈북민은 다음과 같이 구술한다.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경제적으로나 머리가 남보다 아이디어가 좀 빨랐다고 봐야죠. 고난의 행군시기에 북한돈 600원을 가지고 장사밑천을 해서 장사를 하다 보니 1~2년 지나면 그 600원이 600만원이 되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북한에선 딱히 직업이 있다 없다 이렇게 분간을 하기 좀 어려워요. 예를 들어 장사해서 큰 부자가 된 한 여자는

44) (함북 청진시, 50대 전문대 졸 여성, 예술단배우 출신, 2012년 탈북)

45) (양강도 혜산시, 40대 대졸 남성, 국가기관 간부 출신, 2011년 탈북)

무직이에요. 부양세대도 아니고 노처녀였죠. 장사를 시작해서 남편을 만났어요. 자기 능력이 있으니 자기보다 7살 아래인 총각을 꼬셔가지고, 근데 김일성이 있을 때도 무직이라 하지만은 8.3이라는 돈을 내게 되면, 편의시설사업소에 봉사원으로 회사에 이름을 걸고 장사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하다보면 요령이 트고 또 기술적으로도 발전이 되는 거죠. 실패도 좀 하면서 하다보면 성공이...고이기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쌓아 놓은 돈이 있으니까 (뇌물을) 찔러주고, 그러면 또 (안면관계도) 넓어지고 하다나니까 웬만하면 이제 다 눈감아 주는 겁니다. 웬만한 비리 비법장사 아닌 다음에는 그냥 다 눈감아 줍니다.”⁴⁶⁾

이 구술의 인물 사례가 계층이동에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자기 능력, 국가통제를 벗어나는 요령, 뇌물, 간부와의 관계 등이다. 이러한 양상이 최상층에서도 나타난다. 그 원인과 사례로 최근 고위층 탈북민은 다음과 같이 구술한다.

“무역종자는 위로부터의 지시가 아닌 사람들의 이윤추구활동 과정에서 창출됩니다. 개인이 중국 정세, 여유자금 등을 고려해 무역종자를 터득하는데만 2~3년이 걸리며, 당에 바로 보고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유급 당비서만 보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종자를 보고할 수 있는 통로를 찾습니다. 지방인 경우 지방도 무역관리국에 종자를 신청하면 관심 있는 기관에서, 8.3노동자로 등록시켜주고 원천 외화벌이 부원으로 채용합니다. 외화벌이 사업을 잘 진행하

46) (양강도 해산시, 40대 대졸 남성, 국가기관 간부 출신, 2011년 탈북)

는 경우 도 무역관리국이나 도급기관에서 이 사람을 끌어올립니다. (장성택의) 행정부 부부장이었던 리룡하도 지역 출신인 데, 90년대 초반 청산 무역회사가 가지고 있던 일본산 중고차 판매 워크를 사서 지방에서 사업을 하는 가운데 장성택 눈에 띄어, 54부 산하 총회사 사장을 역임하다 행정부로 승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⁴⁷⁾

계층이동과 관련해 정치적으로 주목할 점은 당원수의 증감 추이다. 김일성 시대부터 현재 김정일 시대까지 당조직 관리 관련 당원수 변화 실태 및 그 이유에 대해 2급기업소 초급당비서 출신의 2014년 탈북민은 다음과 같이 구술한다.

“북한 내 당원수가 500만명이에요. 제가 2010년도 우리 공장기업소에서 당 프로(비율) 계산해 군당위원회 제출했는 데, 왜 이 당프로 제출 했는가. 갑자기 당원들이 없어진 룰이 많았어요. 밥먹고 살기가 힘들고 하니까 중국 가고 뭐 산에 들어가 벌이 하다가 사람들 모르게 죽고. 죽어서 못 나오는 거 있거나 하다나니까 당프로가 확정 못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앙으로부터 시작해서 프로 확정하라. 그래서 프로 확정한 게 그때 500만 명 정도로 나왔거든요, 많이 늘었어요. 왜 그런가, 김일성이가 죽고 김정일이 출마하면서 김일성이 있을 때보다 김정일이 당프로를 많이 늘였어요.”⁴⁸⁾

“우리 김일성이 있을 때, 그 때는 당원이다, 당에 입당한다 하는 거는 엄청 힘들었어요. 그때는

47) (평양, 50대 대졸 남성, 외화벌이 간부, 2014년 탈북)

48) (양강도, 60대 도당학교졸 남성, 군단위 2급기업소 초급당비서 출신, 2014년 탈북)

뭐 돈을 100만원 가지고도 입당을 못했어요. 김일성은 그렇게 요구성을 높였거든요. 실지 조선로동당원이다 하게 되면 당원으로서 선봉적 역할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강하게 통제를 했기 때문에 이 덮어놓고 당에 입당 못했거든요. 그러나 김정일이가 출마를 하면서 김정일이는 당프로를 늘여라. 우리 당대렬을 강화하자면 당프로를 늘여야 당대렬 강화할 수 있다. 왜서 이 말이 나왔는가. 김정일이 한테서는. 당원 1명이 김일성이 있을 때는 천 명을 교양 하는 걸로 돼 있었지만은 당원 1명에서 천 명을 교양 못한다. 그러기 때문에 당원 1명에서 100명을 교양하는 걸 원칙으로 하자. 이래서 당프로 늘인 거예요.” 49)

이 탈북민 증언에 따르면 김정일 시대 당원이 증대되었다가 김정은 시대 들어 500만 정도의 당원이 고정되고, 더 이상 확장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줄어들었을 수도 있다고 한다. 그 실태 및 이유를 살펴보자.

“김정은이 출마를 하면서는 이 당프로가 완전 잘렸었어요. 김정은이는 500만 당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 500만의 당원들 가지고 북한의 모든 정치를 할 수 있다. 이런 걸 선포는 안 했지만은, 뜻은 그 뜻을 가지고 당 대열을 정지시켜라. 이런 의미로 해서 당에 입당하는 거 정지시켰었어요. 2012년도 이후에” 50)

이러한 ‘당원수 고정’에는 일반주민들 또한 먹고 살기 바쁘고 당원이 되면 요구하는 것이 많아서 과거처럼 입당을 선호하지 않는 사회변화도 반

49) (양강도, 60대 도당학교졸 남성, 군단위 2급기업소 초급당비서 출신, 2014년 탈북)

50) (양강도, 60대 도당학교졸 남성, 군단위 2급기업소 초급당비서 출신, 2014년 탈북)

영되어 있다.

또 다른 한편 정책적으로 우리가 주목할 계층으로 ‘독려계층’이 있다. 독려계층은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국제관계 등을 고려해 특정시기 마다 지시한 방침에 따라 만들어진 개념이다. 즉, 출신성분이 좋지 않으나 충성을 하면 기회를 주겠다는 의미, 충성을 독려한다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계층 개념이다. 재일교포 가족 출신이거나 외국에 친척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다. 이들은 정치적으로 요주의 대상이며 북한사회에서 계층 상승의 기회가 제약되어 있다.⁵¹⁾

그런데 이들 중 해외 가족이나 친척들이 송금을 보내거나 개인능력을 발휘할 경우 정치적으로는 하층이지만 경제적으로는 중상층 생활을 한다. 여기에는 탈북민 가족들도 해당된다. 이들 중에는 해외 친척이 보낸 돈으로 장사를 해서 돈을 벌고, 뇌물을 통해 권력층과의 관계를 긴밀히 하면서 돈주가 되거나 상층 생활을 하는 이들도 있다.⁵²⁾

51) (함남, 50대 고등중졸 여성, 공장노동자 출신, 2012년 탈북)

52) (양강도 혜산시, 40대 대졸 남성, 국가연구원 조수/학교교원 출신, 2013년 탈북)